

### 3. 地域側 主題發表

#### 『 사랑 · 地球 博覽會 創造와 挑戰 - EXPO 2005 AICHI JAPAN - 』



坂本 春生 (SAKAMOTO Harumi)  
(財)2005年日本國際博覽會協會 副會長

방금 소개받은 박람회협회의 사카모토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는 2005년 일본국제박람회, 약칭 아이치 엑스포를 위해서 여러 협력을 해주시고 계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런 훌륭한 회의에서 우리 아이치현의 보고사업으로써 아이치 엑스포에 관한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세토 회장님을 비롯한 주최측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사랑 · 지구박람회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시간이 없으므로 슬라이드를 이용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는 일본어와 한국어로 된 자료가 배부되었습니다.

2005년 일본국제박람회의 개요입니다. 내년 3월 25일부터 장소는 나고야동부 구릉입니다. 이것은 외국인들을 위해서 아이치현이 일본의 이곳에 있다고 하는 것을 지도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연의 예지”라고 하는 것이 이번 엑스포의 주제입니다. 국제박람회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테마가 있는 법인데 이번의 테마는 “자연의 예지”입니다. 요즘 일본사람들은 이 예지라고 하는 한자를 잘 읽지 못합니다. 예지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구체적인 해설을 하자면 어려운 테마입니다만, 제가 상식적인 선에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20세기까지는 인류의 예지, 인류 만능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엑스포라고 하는 것도 인류 만능이라고 하는 것을 제창한 것이었고 이것을 표현하는 성격의 박람회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20세기 후반부터 자연의 어떤 보복이라고 할까요, 인간이 자연을 너무 훼손시켰기 때문에 자연에 반격을 받게 되었고 지구온난화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21세기는 이 자연의 섭리를 존중하고 이를 토대로 인간의 예지를 발휘해 나가자 하는 의미에서 자연의 예지라는 테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구 대교류”,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교류를 한다는 테마를 잡아 봤습니다.

새로운 창조와 도전이라고 써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엑스포는 일본에서 개최되는 35년만의 박람회입니다. 오사카 엑스포가 바로 35년 전에 일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팝플렛을 보면 “인생에서 한번은 만국박람회, 엑스포다”라고 써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미 오사카 만국박람회를 경험하셨고 아이치에서 두 번째로 엑스포를 경험하시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매력적인 엑스포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35년만에 개최되는 엑스포라는 점,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보더라도 21세기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박람회라는 점, 그런 면에서 저희들은 이번 엑스포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와 도전을 시도하겠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배려한 박람회장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만국박람회, 엑스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 진흥의 일환으로써 어떤 장소를 개발하고 그곳에서 엑스포를 개최하고 그 자리를 주택으로 개발하고 공장부지로 이용하는 그런 개발형의 엑스포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개최되는 엑스포는 그런 과거의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원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회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언급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이 주회장이라고 하는 것은 나고야 동쪽 2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아이치현립공원을 이용합니다. 185헥타의 넓이를 갖는데 이렇게 공원을 이용해서 엑스포를 개최한 다음에 다시 공원으로 되돌립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공원에 손을 대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최대의 과제입니다. 즉 개발하지 않으면서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하는 것이 큰 과제인 것입니다.

2002년 4월이라고 써있습니다. 이것은 공원이었을 때의 녹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밑에 2003년 10월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 중간상태의 녹음의 양을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이 2005년도의 박람회장 예상도입니다. 전혀 녹음의 양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녹음의 양을 바꾸지 않으면서 회장을 조성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개발을 전혀 안했다는 것입니다.

오른쪽 맨 위를 보시면 ‘구 모험과장’이라고 써있습니다. 이곳은 외국이 파빌리온을 건설할 곳인데 하얗고 네모난 건물입니다. 그리고 ‘구 캠프장’이 있고 그 밑에 하얗고 어묵 같은 건물이 보이는데 이것은 ‘구 수영장, 스케이트장’, 그 밑에 가 ‘구 야구장’, ‘구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평했던 부분만을 이용해서 건물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구 수영장, 스케이트장’ 같은 건물도 그대로 옛것을 그대로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파괴도 안하고 파지도 않으면서 회장 조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연못이 열네군데 있습니다. 연못을 없애거나 매립을 하게 되면 근처의 농가에 피해를 주게 되므로 이 연못도 일체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40미터의 고저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빌딩으로 보면 10층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통불통합니다. 그리고 여러 희소 동식물이 존재합니다. 제가 이름을 말하면 한국어로 번역하기 어렵기 때문에 굳이 이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연못에는 여러 가지 희귀 생물들이 우리 일반사람들의 귀에 생소한 그런 동식물들이 이 연못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손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회장에서는 배리어 프리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팜플렛을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노란색으로 표시했는데 표주박 같은 모양의 루프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중회랑을 만듦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공중회랑을 인공적으로 조성함으로써 그 공중회랑, 복도를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것입니다. 그 회랑은 전부다 연못을 피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표주박 모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고저차이가 있다보니까 그 고저차 같은 것은 지면하고 딱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교각 같이 공중상태에 이 회랑을 건설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전의 지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회랑을 건설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박람회 사상 녹음, 물이 살아 숨쉬는, 그리고 공중회랑이 있는 그런 회장을 만들었습니다. 회랑은 전부 나무로 깔았습니다. 철파이프도 일부 썼습니다만, 재활용이 전부 가능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입체적이고 자연친화적인 회장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박람회 사상 최초의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람회 회장을 건설함에 있어서 환경영향 평가도 했습니다. 217개 항목에 관하여 환경영향 평가를 했습니다. 그 외에 환경문제를 중요시하기 위하여 3R(Reduce, Reuse, Recycle)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즉 여러 식물들에 손을 안댔습니다. 아주 작은 나무를 뽑았을 경우에 그 나무를 주민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나무의 뿌리를 다치지 않도록 잘 이식을 했습니다. 또 꼭 해체를 해야만 하는 건물들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철골만 다시 재활용하는 노력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본 아이치 엑스포에는 125개국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유럽에서 개최할 경우에는 참가국이 매우 많은데 일본이나 여러 다른 나라에서 개최되는 엑스포에 100개국이 넘게 참가한다고 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그리고 한국은 125개국의 참가국 중에서 조기에 참가의사를 표명한 아주 적극적인 참가국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공식 참가자들이 한국 파빌리온이라든가 중국 파빌리온이라

듣가 참가국들이 멋대로 파빌리온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여섯 가지 글로벌 코먼이라고 하는 공동구역을 설정해서 그 구역에다 아파트 같은 형태로 각국의 파빌리온을 건설해 주십사 부탁을 했습니다. 글러벌 코먼 1이 한국이 출품하게 되는 코먼입니다. 한국은 글로벌 코먼 1에서 가장 두드러진 노른자위와 같은 파빌리온을 건설할 것입니다. 단독 국가에게 허용되는 최대의 넓이를 한국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공중회랑, 글로벌 루프입니다. 왼쪽에 보면 교각이 보입니다. 가는 철파이프로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철선구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같이 콘크리트로 교각을 만들게 되면 보기도 나쁘고 지면에 영향도 미칩니다. 이 경우는 부채꼴 모양으로 땅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적습니다. 윗부분이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자연친화적인 것을 느낄 수 있고 스트리트 퍼포먼스도 볼 수 있습니다. 폭은 21미터입니다. 그리고 2.6킬로미터의 길이입니다.

이것은 일본 정부관입니다. 호스트 국가로써 우리가 상당히 힘을 쓸게 되는데, 일본정부는 2000년에 20세기 최후의 세계 박람회가 하노버에서 열렸는데 하노버엑스포에서 일본에서는 종이와 나무로 파빌리온을 건설해서 아주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번에는 대나무 바구니로 파빌리온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온도조절도 능한 파빌리온입니다.

다음은 아이치현 파빌리온입니다. 왼쪽이 나가쿠테 전시관인데 일본의 전통문화를 반영한 아름다운 파빌리온이 될 것입니다. 다음이 나고야시 파빌리온입니다. 그룹사운드 멤버인 후지 후미야라는 가수가 아이디어를 내주었습니다. 그 다음은 민간 파빌리온입니다. 단독으로 민간 파빌리온을 만들지는 않고 그룹이나 업계, 단체로 파빌리온을 구성합니다. 팜플렛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양한 참가라는 가치를 내걸고 있습니다. 시민이 주최자로 참가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엑스포는 시민은 자원봉사자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물론 다수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아이치 엑스포에서는 시민들이 파빌리온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지구시민마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국제적인 NPO, NGO들과 일본의 NPO, NGO들이 파트너십을 형성하게 됩니다. 가운데 보시면 시민 파빌리온이 있습니다. 해상광장이라고 불리우는 것으로 부회장(서브 회장)에 만들어지는 것들입니다.

박람회협회가 매우 의욕적인 이벤트를 갖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글로벌 하우스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전 수영장·스케이트장을 그대로 활용해서 전시장으로 바꿨습니다. 45억년의 지구의 역사를 영상과 실물을 통해서 소개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2005인치의 초와이드 스크린이 등장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고래가 있는데 그 고래의 실물크기를 이 스크린을 통해서 보여줄 것입니다.

맘모스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의 역사상 하나의 커다란 이정표라고 할 수 있는 맘모스를 시베리아 동토로부터 캐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위험이 있긴 한데 시베리아에 그 맘모스를 파려 갔습니다. 지금 조사단계인데 곧 파낼 것입니다. 그 맘모스의 모습을 언 상태로 가져와서 어느 정도 녹은 상태에서 선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이웃집 토토로」라는 유명한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그 영상을 그대로 재현한 것입니다. 다음은 글로벌 루프 안에 가장 큰 연못이 있는데 그곳에서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퍼포먼스를 하는 것을 소개한 것입니다. 나이트 이벤트를 합니다. 이 이벤트에는 세토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기업이 협찬해 주고 계십니다. 그 밖의 여러 단체로 패밀리온뿐만 아니라 여러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오른 쪽은 로리 앤더슨씨입니다. 이분도 퍼포먼스를 해주실 것입니다.

엑스포와 산업기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박람회 엑스포는 반드시 훌륭한 예술작품이 선보이고 동시에 최첨단 제품이 선보이게 됩니다. 그간의 엑스포를 보면 모두 그렇습니다. 이 150년 이상의 엑스포에서 선보였던 기술들을 선보이게 됩니다. 다음은 이번 엑스포에서 소개되는 산업기술의 일례입니다. 로봇, IC, 바이오 테크놀로지 등 많이 있는데 특히 아이치만박에서 각 기업이 힘을 쏟고 있는 것이 바로 환경기술입니다. 여기 환경장치가 보입니다. 전문적인 사항이라 설명드리기 힘듭니다만, 회장내의 여러 음식물쓰레기가 나옵니다. 또 폐트병이 나오는데 그런 쓰레기들을 모아서 연료전지를 만드는 장치입니다. 유기 폐기물도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이오 랑그입니다. 이것은 식물, 생물의 재입니다. 보통 녹화라고 하면 평지에서 하는데 최근에 건물 옥상에서 녹화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수직 녹화벽입니다. 옆으로 120미터 정도, 높이 12미터, 길이 150미터의 거대한 벽을 만들어서 그 벽 자체를 전부 녹음화 하는 것입니다. 패널을 세로로 세워서 거기에 모두 식물을 심어서 탄산동화작용이나 히트 아일랜드의 방지 등을 하여

새로운 도시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커다란 실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을 빨아들이는 기술이 상당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신교통시스템입니다. 왼쪽이 연료 전지 버스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일본 최초의 리니어 모터카입니다. 애칭 「리니모」라고 합니다. 나고야시 지하철역에서 박람회장까지 자기부상형 리니어 모터카를 운영합니다. 선로에서 열차가 떠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하고 진동도 없습니다. 그리고 경치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신교통 시스템으로 연결기 없이 세대의 버스가 무인 운행합니다. 한 대만 다른 곳으로 운행할 경우 유인 운행하게 됩니다.

국제박람회 사상 최초의 IC칩 입장권을 도입했습니다. 입장권 뒷면에 아주 작은 IC칩을 심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칩을 통해서 예약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입장권은 이미 많이 선전이 되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여러 조직, 기업에서 이 박람회 입장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매우 잘 팔리고 있습니다. 1500만명의 입장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올 3월까지 예매 1기였습니다. 입장권 할인율이 점점 작아집니다. 지금 할인율이 높습니다. 1기에 713만매의 입장권이 팔렸습니다. 여러분의 협력 덕분에 예매권의 대부분이 1기에 판매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예매권 판매에 힘쓸 것입니다. 또 한국의 여행사, 항공사를 이용해서 이 입장권을 예매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우리 스텝들이 가서 아이치 엑스포를 선전하고 있습니다. 나고야에 주재하고 계시는 총영사님 지원하에 민단에서도 입장권을 적극적으로 예매하기 위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엑스포 개최 한달 전인 2월 17일에 중부국제공항이 오픈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과 나고야간에 새로운 항공노선이 개항될 것입니다.

끌으로 관광입니다. 보통 관광하면 역사, 자연, 온천인데 중부지역은 산업의 메카입니다. 일본지역에서 산업이 가장 잘 발달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산업관광이라는 단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공장이나 산업시설을 관광하는 것입니다. 엑스포를 찾는 분들이 주변지역의 산업시설, 산업관광도 할 수 있게끔 꾸며보겠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 사랑·지구 박람회 창조와 도전



재단법인 2005년 일본국제박람회협회 부회장  
사카모토 하루미

### 「2005년 일본 국제 박람회」의 개요



정식명칭

2005년 일본 국제 박람회

애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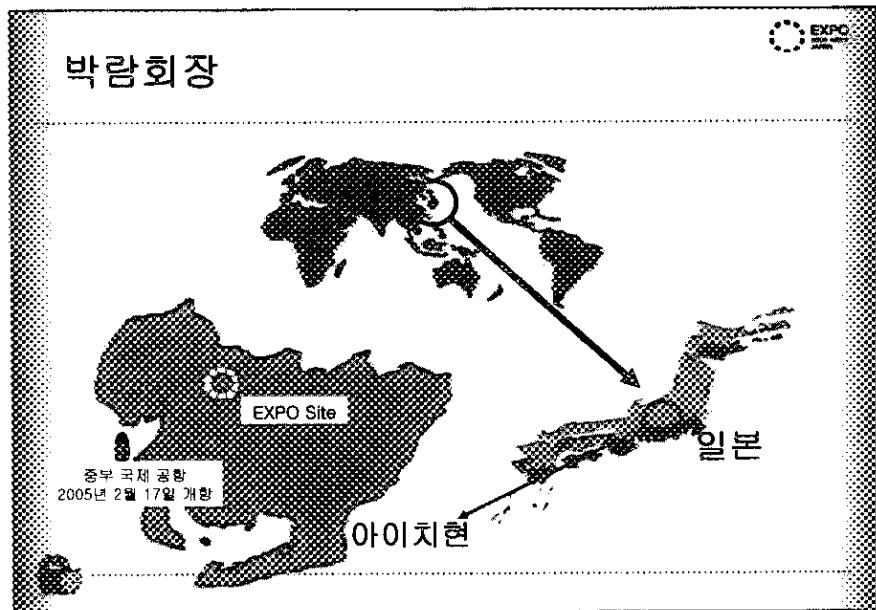
사랑·지구 박람회

기간

2005년 3월 25일부터 9월 25일

장소

나고야 동부 구릉



EXPO 2005 Aichi Japan

자연의 예지

- 우주 생명과 정보
- 인생의 “술기”와 치혜
- 순환형 사회

지구 대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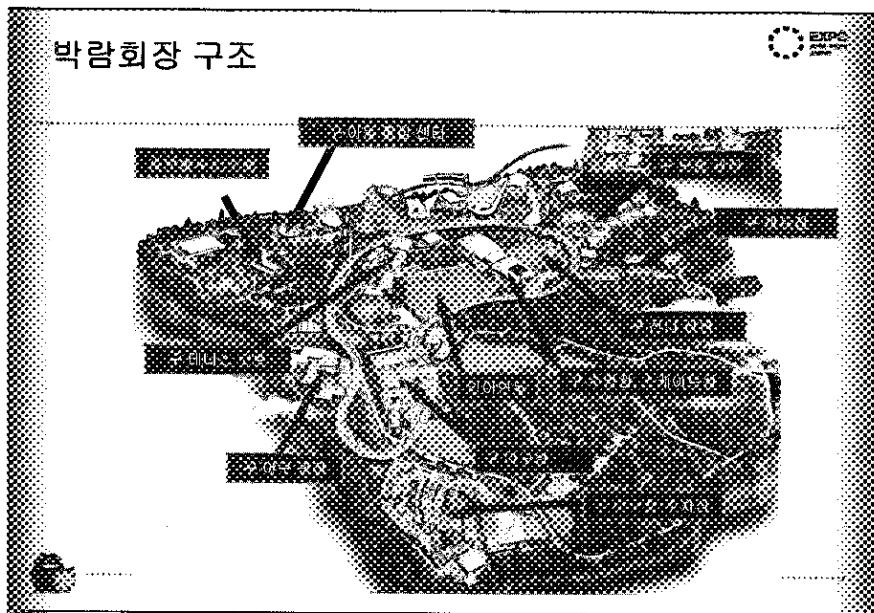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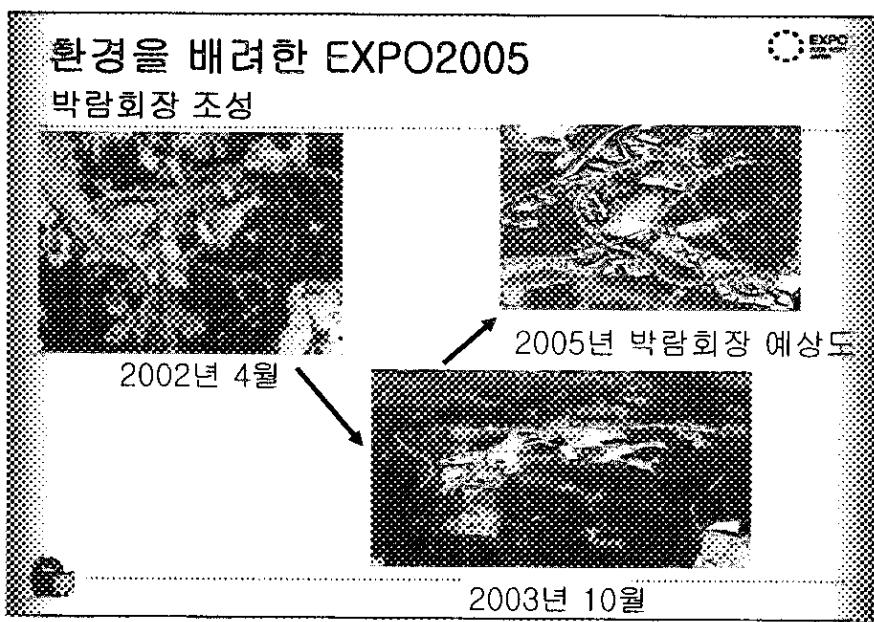


새로운 창조와 도전

새로운 창조와 도전



환경을 배려한 EXPO





## 환경 영향 조사의 실시

### 환경 영향 평가 항목

- 217항목에 이르는 항목을 선정.
- 예) 희소 동식물, 대기질, 수질, 진동…….



## 3 R을 기본으로: Reduce, Reuse, Recycle



지장목의 배포·이식



해체 콘크리트 등, 100% 재사용

## 새로운 창조와 도전



### 다양한 형태에서의 참가 형태

## 다양한 참가

125개국의 참가(2004년 1월 20일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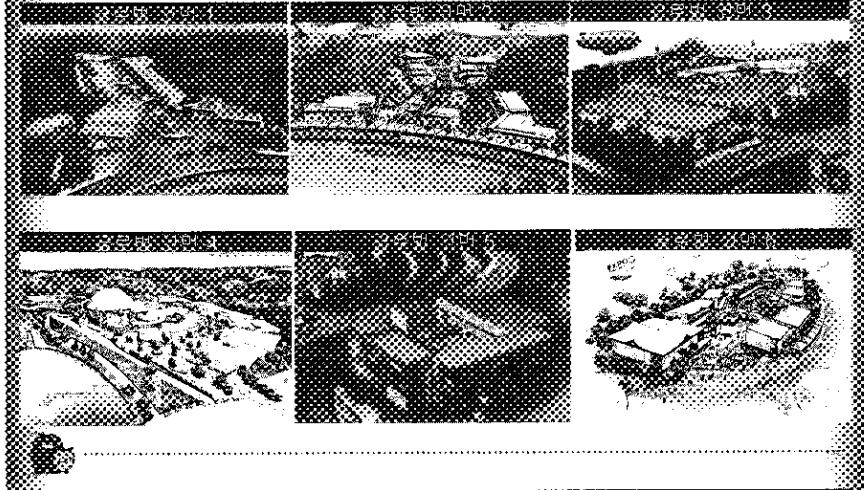
8 국제기관의 참가

- 1 UN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2 United Nations University
- 3 Asian Productivity Organization
- 4 UN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 5 UN Centre for Regional Development
- 6 Organiz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
- 7 International Tropical Timber Organization
- 8 World Tourism Organiz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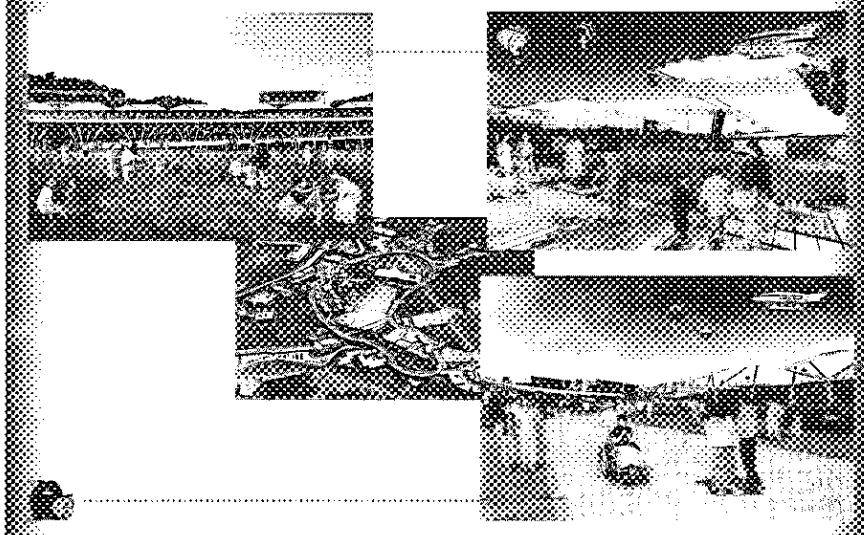
아시아 : 25개국, 남북아메리카 : 18개국, 유럽 : 35개국, 아프리카 : 34개국, 오세아니아 : 13개국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단체를 비롯한 국제박람회 최초의 NPO/NGO, 일반 시민, 대형 미디어사도 본격적 참가.

## 글로벌 코먼(Global Comm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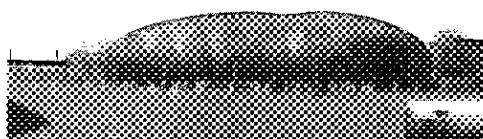
## 글로벌 루프(Global Loop)





## 일본 정부관

(Japan Government Pavilion (Japan Government Pavil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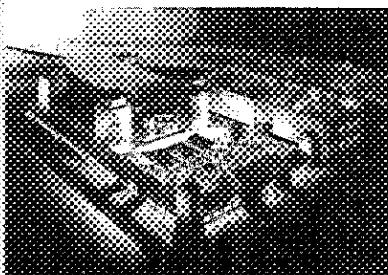
세토 전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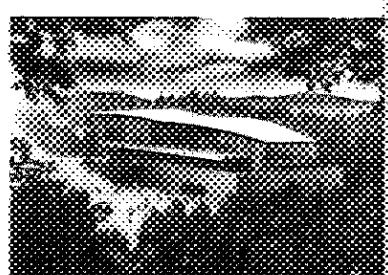
## 아이치현 파빌리온

박람회 호스트현 아이치현의 파빌리온

나가쿠테 전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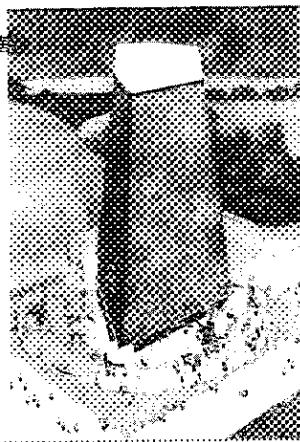
세토 전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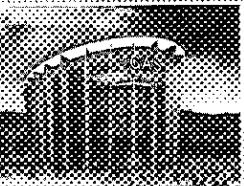
## 나고야시 파빌리온

빛이 연주하는 거대 万華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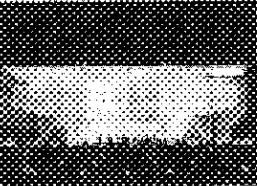


## 민간 파빌리온

가스 파빌리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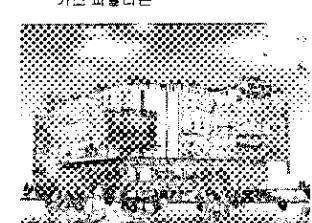
미초이·토시바관



JR토카이 리니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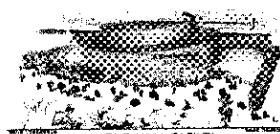
원더 서비스 전력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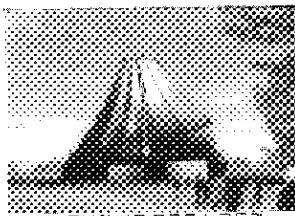
원더 資 源 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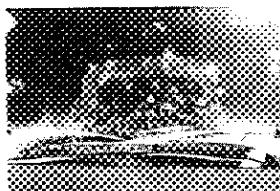
## 민간 파빌리온



미쓰비시 미래관



주니치 신문 프로모션 공통관



토요타 그룹관



히타치 그룹관

## 시민참가 사업

사랑·지구복원  
시민참가 사업

시민 참가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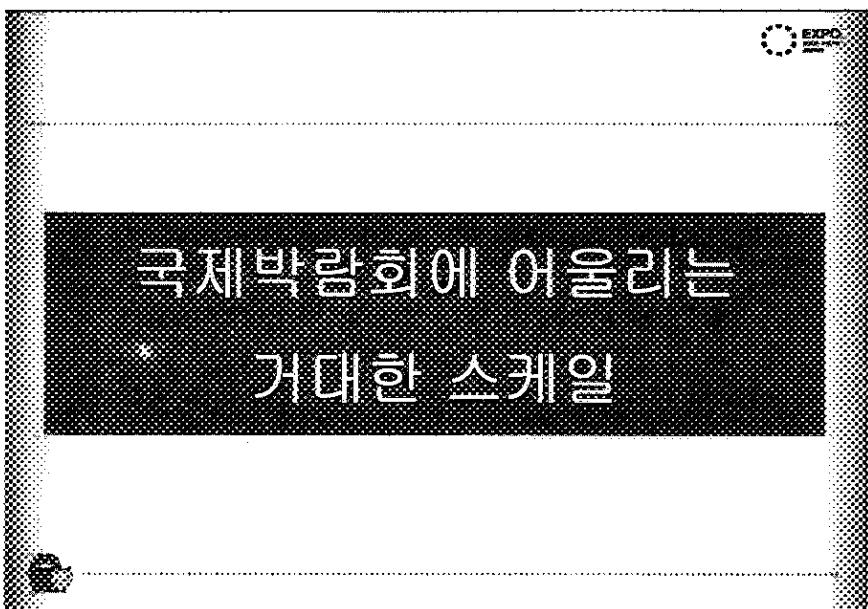


지구 시민마을

시민 파빌리온/해상 광장



국제박람회에 어울리는  
\* 거대한 스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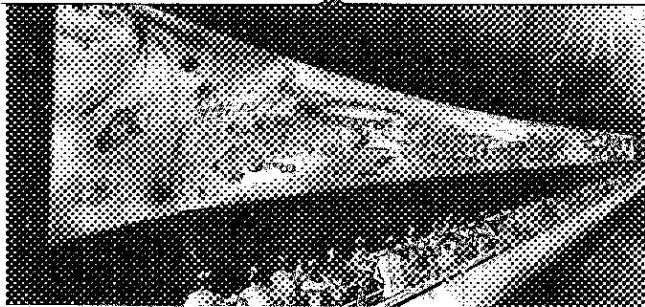


## 글로벌·하우스(협회 기획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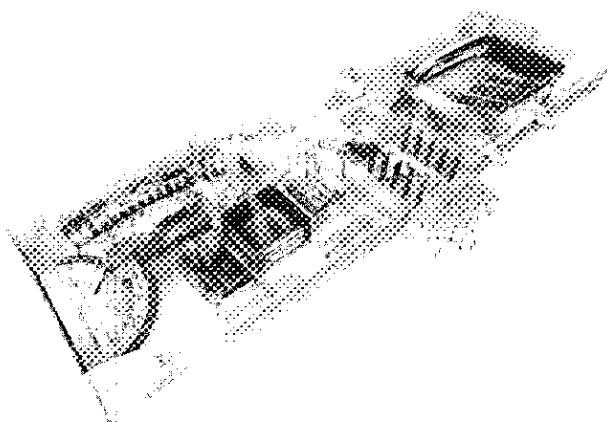
우리가 지구를 더 많이 알고, 지구를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한 심볼·파빌리온

주사선 4000개급의 세계 최초 차세대형  
초정밀 하이비전 시스템의 등장

2005인치의 세계 최대 수준의 레이저  
투사형 초와이드 스크린의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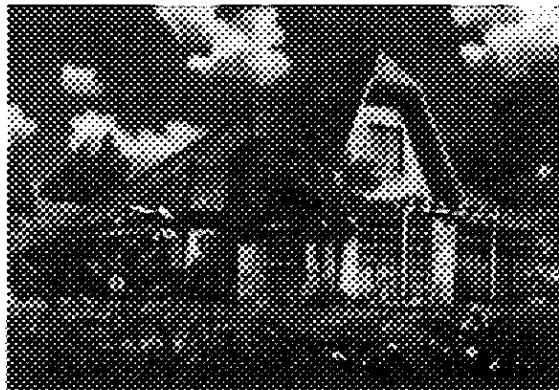
## 망모스의 발굴·전시 계획





## 자연체감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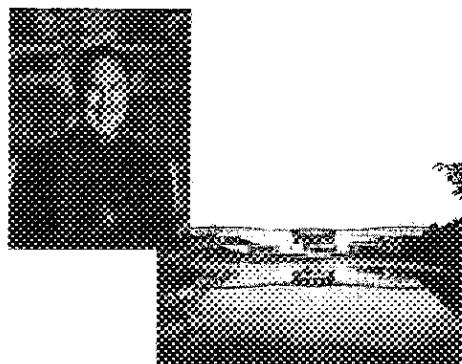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이웃의 토토로」의 주인공 사초키와 메이의 집 재현 등



© 후타바치카라·토쿠미 서점



## 세계적인 아티스트에 의한 퍼포먼스



로버트·월슨에 의한  
잉여연못-나이트 이벤트



로리·앤더슨의  
퍼포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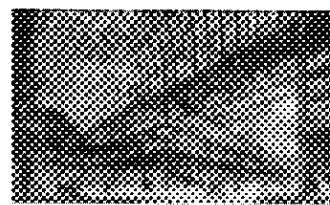
## 국제박람회와 중부권관광

### 국제박람회와 산업기술

1851년의 런던 국제박람회 아래, 국제박람회의 원점은 산업기술.



크리스탈 팰리스 런던 국제박람회 / 18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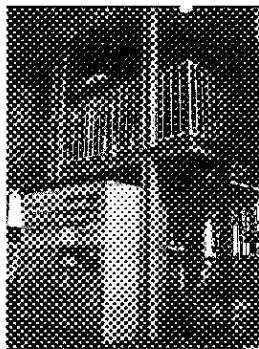


엑스포 1992 파리 국제박람회 / 18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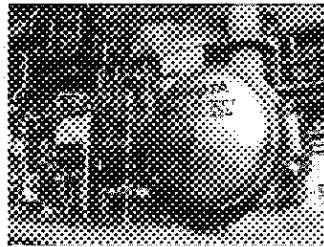


## 국제박람회와 산업기술

- 21 세기 최초의 국제박람회에 요구된 것은 환경 기술.



유기 폐기물 고온 가스 변환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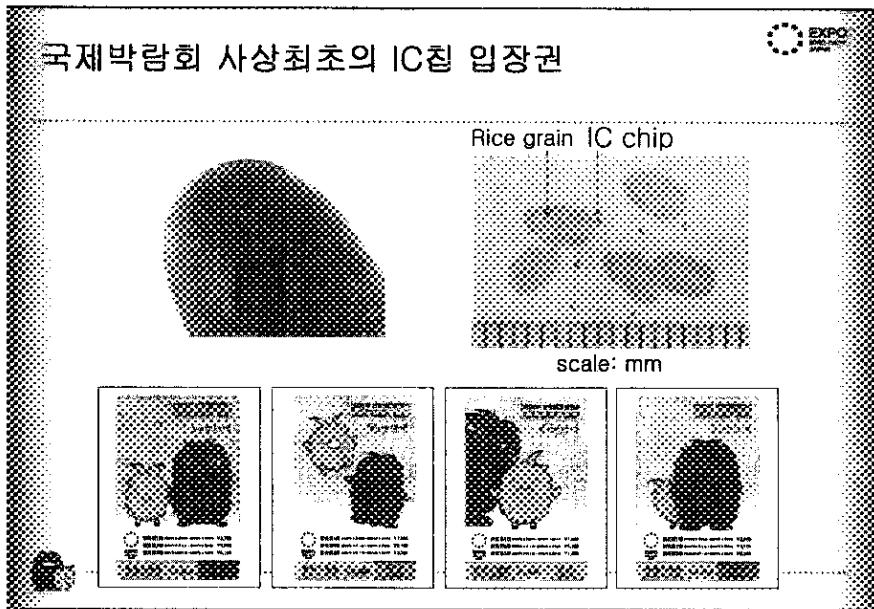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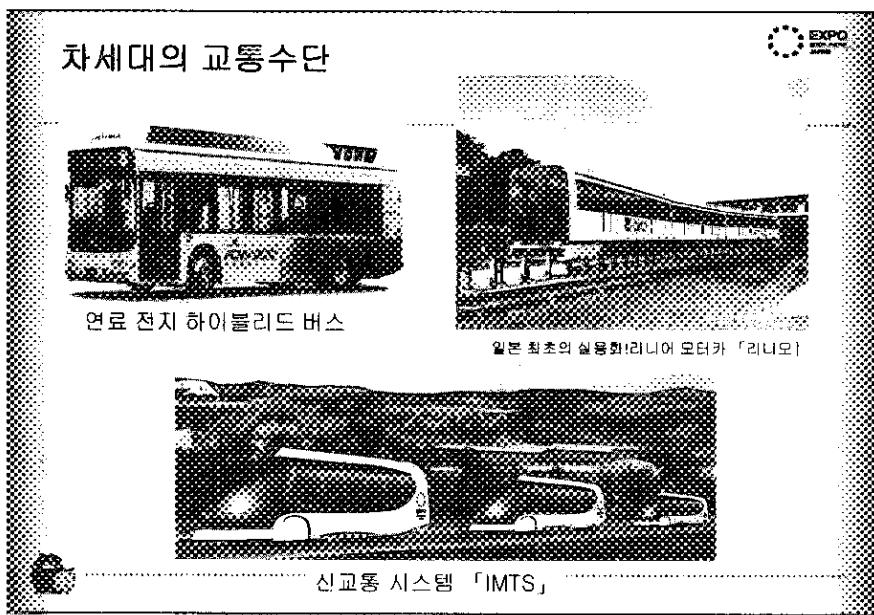


MCFC+마이크로 GT 하이브리드 시스템

## 바이오 랑그

꽃과 초록으로 가득 찬 길이 150m×높이 12 m의 거대한 벽







## 중부권관광

관광의 유래 「觀國之光利用賓于王」 중국의 고전 「주역」에 의함  
중부권관광의 요소

문화

자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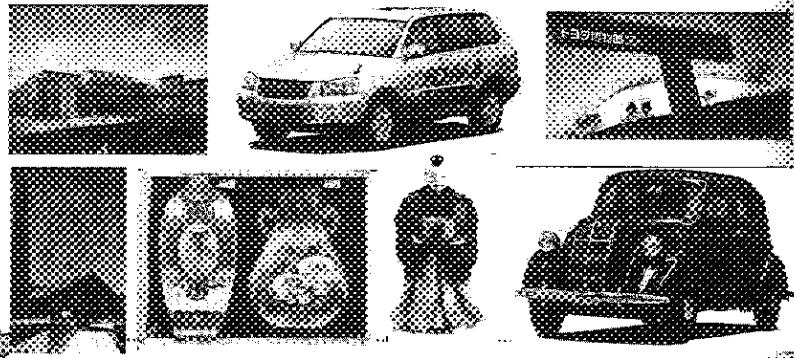
도시

산업

산업 관광은, 옛부터 제조업이 번성한 중부권관광의 특색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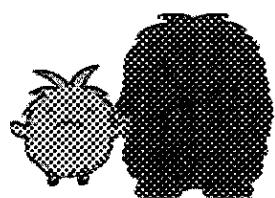
## 산업 관광

중부권은 옛부터 「제조업」이 번성한 지역입니다.  
전통적 수공업에서부터 최첨단의 과학기술까지, 다양한 산업 활동을 실제로 보거나  
만져보기도 할 수 있으며, 새로운 발견이나 즐거운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국제박람회와 함께 꼭 한번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IX. 第 1 分 科 會

### 1. 日本側 백그라운드 페이퍼

『商工會議所에 있어서 產業空洞化 問題에 대한 對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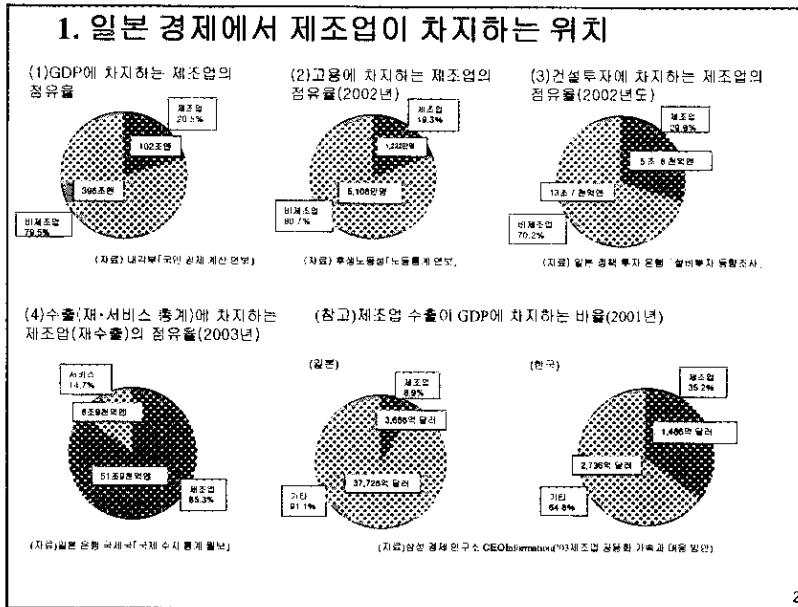


篠原 徹 (SHINOHARA Tor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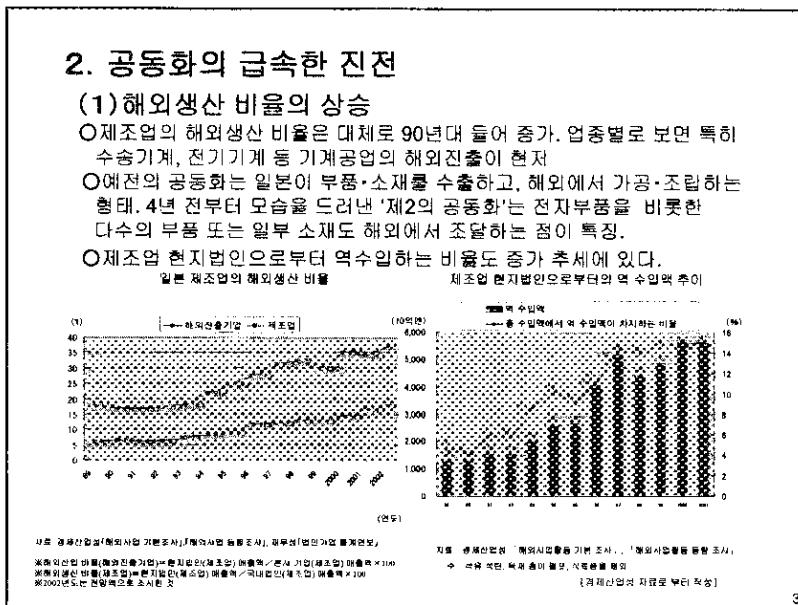
日本商工會議所 常務理事

#### 목 차

1. 일본 경제에서 제조업이 .....2 차지하는 위치	5. 각 지역 상공회의소의 대처 (1)도쿄 오타지역 .....20 (2)오사카 히가시오사카지역 .....21 (3)니가타현 조바메시 산조지역 .....22 (4)나가노현 스와지역 .....23
2. 공동화의 급속한 진전 (1)해외생산비율의 상승 .....3 (2)제조업의 입지·고용 .....4 등의 현상	6. 한일 상공회의소 교류 촉진 .....24
3. 정부의 움직임 .....13	7. 지역 제조업의 공동화 대응 사례 (1)국내 대응형 .....29 (2)해외 대응형 .....31
4. 일본 상공회의소의 대처 (1)지역에서 실행해야 할 .....14 산업공동화 대책에 관한 제언 (2)행동 프로그램 추진 .....15	8. 일본 제조업의 부활을 향해 (1)디지털 가전 특수(特需)가 .....33 설비투자를 지원 (2)공장입지의 국내회귀 움직임 .....34 (3)중국은 '세계의 위협'에서 .....37 '세계의 시장'으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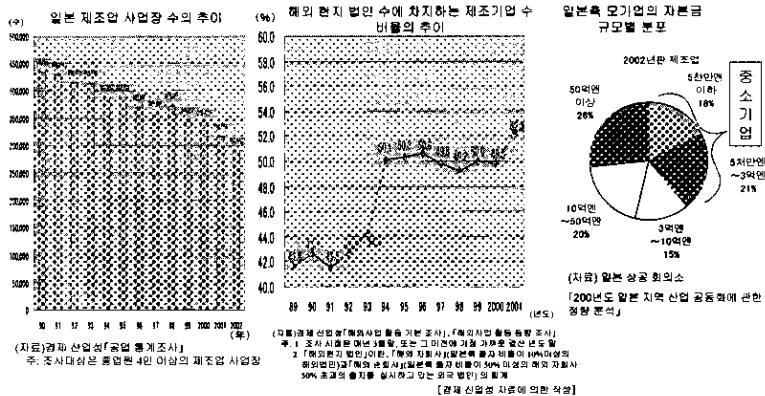
3

## (2) 제조업의 입지·고용 등의 현상

### ① 제조업의 입지

○ 일본에 제조업 사업장 수는, 10년간 약 20%감소.

○ 해외현지 법인 수에 차지하는 제조업 기업 수의 비율은, 장기적 추세로서 증가 경향에 있다. 일본총 기업 수의 약 40%가 중소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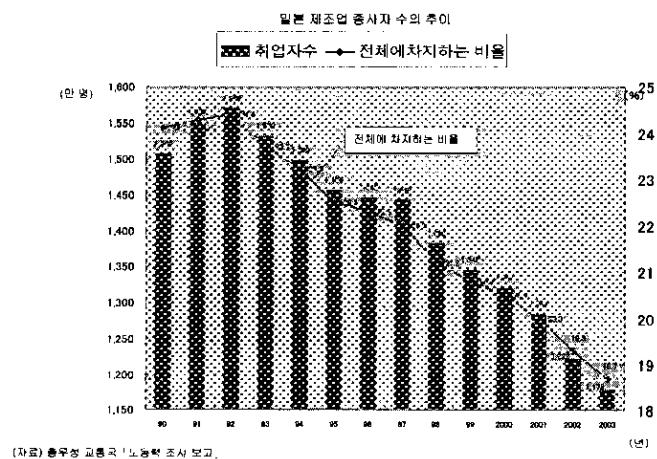


4

### ② 제조업의 고용

○ 일본 제조업의 고용자 수는 90년대에 들어 감소경향에 있다.

○ 전체에 차지하는 비율도 10년 사이에 23.7%에서 18.7%로 5포인트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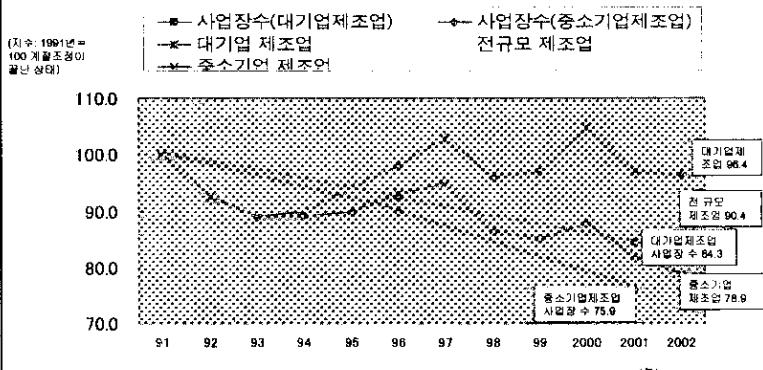


5

### ③ 생활동향과 사업장 수

대기업 제조업의 생산 수준에 비해 중소기업 제조업의 생산 수준은 대부분 사업장 수의 감소에 비례하여 크게 떨어지고 있다.

제조업의 생산 동향과 사업장 수의 추이



(자료) 통무부『사업장·기업 통계 조사』, 중소기업총 시장『규모별 제조 공업 생산 지수』, 경제성산성『생산·출하·재고지수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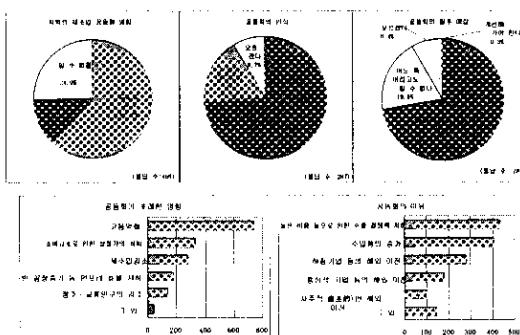
6

### (참고1) 빛소 이와이가 실시한 조사연구 결과의 개요

#### ① 「2002년 지역 산업 공동화의 실태조사」(2002년 3월)

O 응답한 상공회의소의 60%이상이 제조업의 공동화의 영향이 지역에 있다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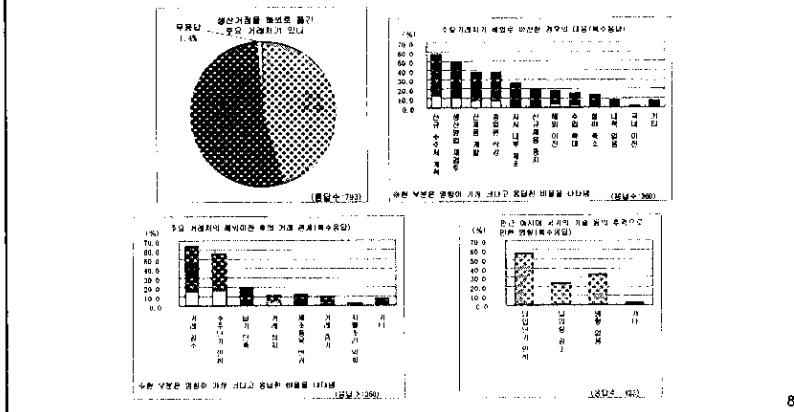
- 그 중 70% 이 공동화의 영향이 심각하다고 인식함.
- 또한, 70%이상이 향후 공동화가 심각화될 것이라고 예상.



제3차 영향이 있다고 생각되는 순으로 3개씩 순위를 매겨 올라 1위를 3포인트, 2위를 2포인트, 3위를 1포인트로서 지수화함.

7

- 응답한 기업의 약 50%가 최근 5년 이내에 해외로 이전한 주요 거래처가 있다고 함.
  - 거래처가 해외로 이전했을 경우의 대책으로는 「신규 수주 개척」「생산방법 재검토」가 많았음.
  - 주요 거래처의 해외 이전 후에는 「거래 감소」「수주 단가 인하」의 영향이 있었음.
- 주요 거래처의 해외 이전이 없는 경우에서도, 인근 아시아 국가들의 추격에 의해 「납입 단가 인하」「납입량 감소」의 영향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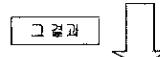
8

## ② 「2002년 일본의 지역산업 공동화에 관한 정량분석」 (개이오대학 산업연구소와 공동연구)

(시뮬레이션①)

→ 1995년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각 산업부문의 해외생산이 각각 1995년 수준에서 2000년 수준까지의 상승에 의해 일본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뮬레이션.

특히, 일본의 주요 산업이며 생산활동의 해외이전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여겨지는 인생(民生)용 전기기기 부문·승용차 부문에 대해 분석.



○ 인생용 전기기기(전기기계) 측면에서는 국내에서 부품 등의 수출증가에 따라 국내 부가가치액·고용에プラス 영향

○ 승용차(수송기계) 측면에서는 국내 부가가치액·고용에 커다란マイ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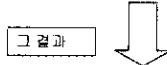
(단위: 100만명, 人)

	부가가치액 증가	부가가치 액 변화율	종업원수 증가	고용자수 증가율
I. 인생용 전기기기	215,655	0.043%	23,241	20.02%
II. 승용차	-1,776,441	-0.352%	-179,611	-162.57%

9

### (시뮬레이션②)

→ 1995년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2000년 이후의 승용차 부문의 해외생산 증가에 따라 승용차의 국내생산 대수가 또다시 100만대, 200만대 감소되는 경우를 상정하여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



○ 100만대 감소의 경우 : 부가가치액 약 3조 1천억엔  
    총업원수 약 32만 명 마이너스

○ 200만대 감소의 경우 : 부가가치액 약 4조 4천억엔  
    총업원수 약 45만 명 마이너스

(단위: 100만 원,人)

	부가가치액 변화	부가 가치액 변화율	종업원수 변화	고용자수 변화
I 승용차 100만대 감소	-3,700억 472	-0.61%	315,477	-285,450
II 승용차 200만대 감소	-4,420억 592	-0.87%	451,342	-406,329

10

### ③ 「2003년 일본의 지역산업 공동화에 대한 정량분석」

(개이오 대학 산업연구소와 공동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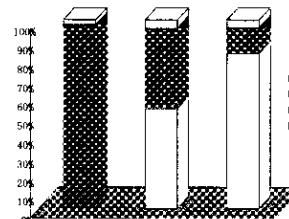
○ 일본계 기업의 중국 진출은 약 90%가 생산활동 목적. 향후 중국 시장을 대상으로 한 판매 거점의 구축이 과제.

○ 앙케이트 조사에 응답한 기업은 해외 생산의 원자재의 50% 이상을 중국·아시아 지역에서 조달. 한편, 생산 기계 설비의 약 70%를 일본에서 조달.



공동화는 해외진출 부문, 원자재 부문, 자본재 생산 부문 등에 넓게 영향을 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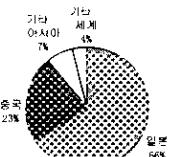
일본, 해외(중국 제외), 중국의 목차 및 사업수 비율



해외생산의 원자재 조달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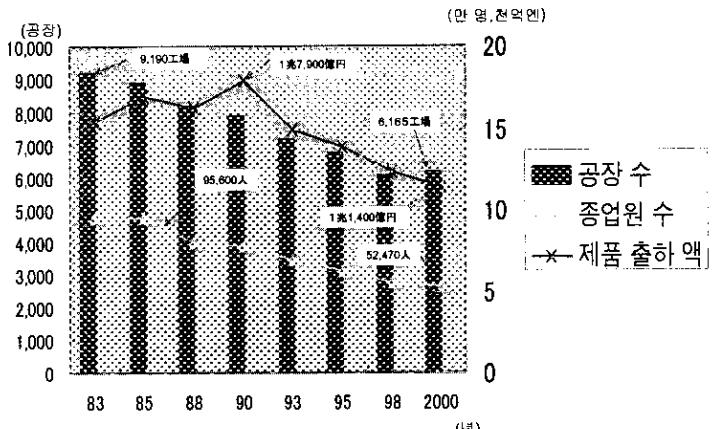
해외생산의 기계설비 조달처 비율



(비고)본 첨부분석은 중국에 사업소가 있는 일본의 자회사와 중국을 포함한 해외에 사업소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일본국내 제조업 기업의 모두 809 개사를 대상으로 일케이트 조사를 실시. 응답한 238개사(1,182 사업소)에 대해서 분석한 것이다.

11

(참고 2) 도쿄도 오타구의 공장수, 종업원 수 및 제품 등의 출하 액의 추이



(자료) 오타구 공업 통계 조사 보고서

12

### 3. 정부의 움직임

#### (1) 수출 진흥

해외 상품 전시회 출전을 지원, 산업 교류 사업(LL사업) 추진.

#### (2) 대외 투자 촉진

해외 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지원 센터 설치.

#### (3) 인 바운드 진흥

Visit Japan 캠페인 전개.

#### (4) 지적 재산 전략의 강화

지적 재산권 보호 대책 확립, 모방품 문제 대응, 금형 치첨 작성.

#### (5) 산관학 제휴·기술개발 추진

지역 산업 클러스터(cluster) 계획 추진, 산관학 네트워크 형성.

#### (6) Japan-브랜드 구상 추진

JAPAN 브랜드 육성 지원 사업 등의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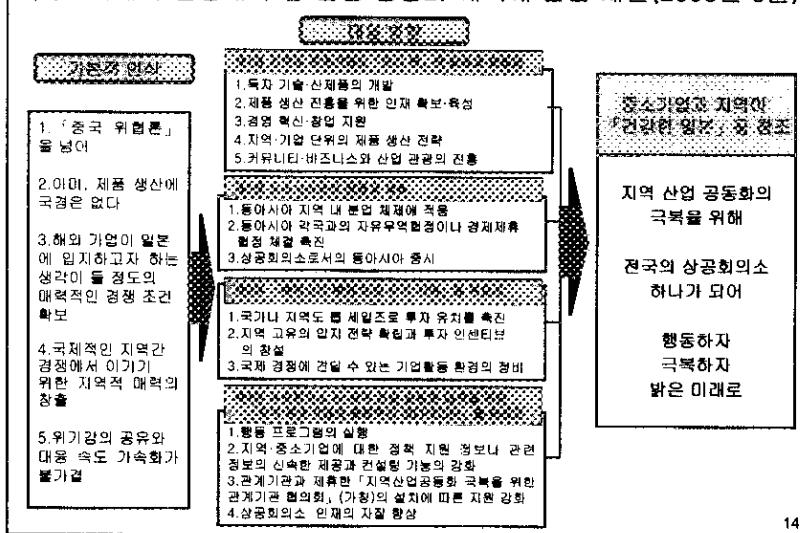
#### (7) 새로운 산업창조 전략 작성(2004년 학정 예정)

중점 6개 분야(정보 가전, 로봇, 연료 전지, 바이오, 환경기기·서비스, 영화 등의 컨텐츠)로의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5년 간 GDP를 연율 2% 끌어올려 300만 명의 고용을 창출.

13

#### 4. 일본 상공회의소의 대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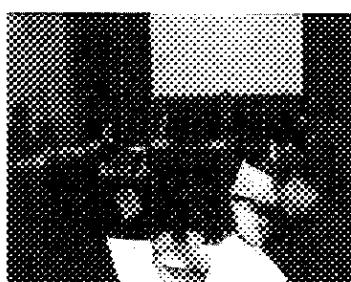
(1) 지역에서 실행해야 할 산업 공동화 대책에 관한 제언(2003년 3월)



14

#### (2) 행동 프로그램 추진

① 연구회 등의 설치·개최



제2회 지역 활성화 소위원회

(2003년 9월 개최)

(주요 활동)

○ 각지의 상공회의소 회원기업의 대 중국 비즈니스 지원을 목적으로 한 「중국 비즈니스 연구회」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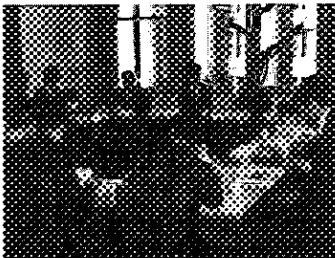
○ 자유무역협정(FTA), 경제 제휴 협정(EPA)의 방향성 검토를 목적으로 한 「국제 경제 소 위원회」 개최

○ 거리 조성·제품 생산 등 향후의 지역 활성화 대책에 관해 검토하는 「지역활성화 소 위원회」 개최

○ 산업 공동화 문제의 실태파악을 목적으로 한, 일본의 지역산업 공동화에 관한 정량분석 연구회 (개이오 대학 산업 연구소와 공동 연구) 개최

15

## ② 「지역 산업 공동화 극복을 위한 관계 기관 협의회」 개최



관계 기관 협의회 제 2회 모임

(목적 : 「정보의 원 스톰·스테이션회」)  
국가·공적 기관의 지원 시책이나 관련 정보를  
일본 상공회의소 및 각지 상공회의소를 통해,  
일원적이고 신속하게 지역과 회원 중소기업에  
제공해, 상담·조언·컨설팅을 강화한다.

### (주요 활동)

- 중소기업·각지 상공회의소의 요구에 대응한  
지원 방향성에 관한 검토.
- 보조금이나 융자 제도를 비롯한 각 관계 기관이  
보유한 지원 품에 대하여, 상공회의소 및 회원  
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 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세미나·연수회·설명회  
등에 강사 파견 및 자료 제공 의뢰.
- 구성 멤버(10 개 기관)의 매일 매거진(기관지)  
등을 발신·소개.

이상 10개 기관

16

## ③연수회·세미나 개최에 의한 인재육성



2003 스와권 공업 국제 박람회 시찰

### (주요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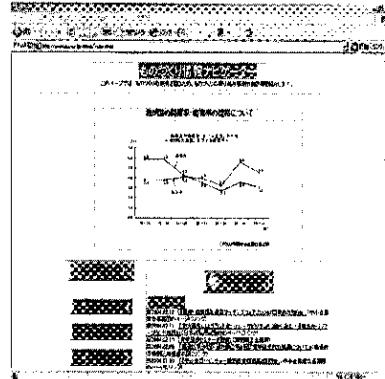
○ 창업·경영 혁신 지원 담당자  
연수회 개최 (2003년 7월,  
시즈오카현 하마마쓰시)

○ 상공회의소 제품 생산 지원 담당  
직원 연수회 개최  
(2003년 9월, 도쿄)

○ 제품 생산 진흥·제조업의  
활성화를 테마로 한, 지역 진흥  
세미나의 개최  
(2003년 10월, 나가노현  
스와시·오키야시)

17

#### ④ 적극적인 정보 제공



닛코이와이 홈페이지

「제품생산 정보 네비게이터」의 룹 페이지

##### (주요 활동)

○ 닛코이와이의 각종 위원회  
등의 행정관계자·전문가의 강연.

○ 닛코이와이 홈페이지 「제품  
생산 정보 네비게이트」에 의한,  
각종 상공회의소의 선진 사례·  
행정 대처 등에 관한 정보 발신.

○ 닛코이와이 월간지 「돌담」,  
기관 발행지 「회의소 뉴스」로 부터  
정보발신.

18

#### ⑤ 관광 교류 촉진

##### <관광 진흥의 의의>

○ 관광은 21세기의 주도산업, 내수 진흥, 고용 창출 등의 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제조업의 공통화 대책으로써도 성당히 효과적.

○ 관광은 사람과 사람의 교류를 통한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의 교류이며, 국가  
문화의 원점 중 하나. 인 바운드 관광의 진흥은 지역의 진정한 국제화를 촉진시키는  
지렛대가 된다.

##### <지역에서의 「new tourism 전개」에 관한 제언(2004년 3월, 일본 상공회의소)>

- ① 「거리 조성의 관점」에 서서 관광 진흥을 추진한다.
- ② 「new tourism」 진흥에 나선다.
- ③ 「관광 입국(立國)」에 어울리는 관광 정책의 실현을 추구한다.
- ④ 상공회의소는 주체적으로 관광 진흥에 나선다.



관광 진흥을 거리 조성 운동으로써  
진행한다

##### <일한 관광 교류 촉진을 위한 대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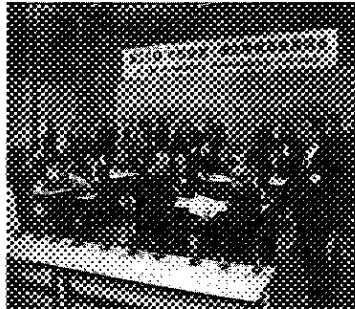
일본상공회의소·대한상공회의소가 관광 교류를 희망하는 양국 국내의 상공회의소를 증개  
한다.

19

## 5. 각 지역 상공회의소 등의 대처

### (1) 도쿄도 오타 지역

(주요활동)



「수·발주 정보 교환 상담회」

- 「PIO 산학 공교류 사업」 실시.  
※ PIO : Place Industry Ota의 약어

- 폐교건물을 이용한 「오타구 창업 지원 시설」 설치.

- 도립 고교의 이중화 시스템에  
의한 제품 생산 교육의 실시.  
※ 이중화 시스템 : 기업과 학교가 단위 학생을 육성하는  
새로운 직업 교육 구조

- 「오타 공업 페어」、「수·발주 정보 교환 상담회」의 개최.

20

### (2) 오사카부 히가시 오사카 지역

(주요활동)



「테크노 국제 공업 박람회  
2003 히가시 오사카」

- 독자 기술을 가진 우수 기업 등을  
소개하는 「공훈 히가시 오사카」의 실시  
(히가시 오사카 상공회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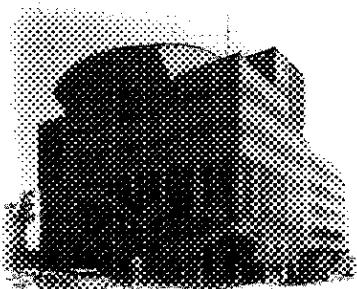
- 산학 연계 지원 프로그램 「STAR」  
의 설치 (히가시 오사카 상공회의소)

- 사업장 창출·육성을 지원하는  
산업 지원 시설  
「creation core 히가시 오사카」의 설치

- 「이익창출 국제 공업 박람회」,  
「테크노 국제 공업 박람회 히가시  
오사카」 등 산업전 개최  
(히가시 오사카 상공회의소)

21

### (3) 니가타현 츠바메 산조 지역



니가타현 켄하사시지역 지방산업 진흥센터  
(산조·츠바메 지역 research core)

#### (주요 활동)

- 「B to B」의 포털 사이트인  
「츠바메 프로시암넷」운영  
(츠바메 상공회의소)
- 금속 연마 업자에 희한 공동  
수/발주 조직「광택 가게 아케이드」  
를 결성함 (츠바메 상공회의소)
- 지방 중소기업의 신제품·기술개발  
등을 지원하는 다목적 시설  
「니가타현 켄하사시지역 지방 산업  
진흥센터」운영

22

### (4) 나가노현 스와지역



「스와권 공업 2003 국제 박람회」

#### (주요활동)

- 출전 기업의 비즈니스 찬스의  
확대·정보 발신을 목적으로 한  
「스와권 공업 메시지」의 개최  
(스와 상공회의소 외)
- 스와 지역의 제조업 기업을 인터넷  
상에서 소개하는 「스와권 공업  
가이드」의 개재(스와 상공회의소)
- 산학 제휴 지원이나 타업종 교류의  
장소로서 활용되고 있는 산업  
진흥 거점「테크로 플라자 오카야」  
운영

23

## 6. 한일 상공회의소의 교류 촉진

### (1) 한일 상공회의소 업무 제휴 등

■ 지방 자치체 = 도도부현: 7개, 시: 64개, 정/촌(읍/면): 31개 (합계 102 개)

### ■ 한일 상공회의소 간의 업무 제휴 등

구분	상의소		제휴 년도
	일본측(현명)	한국측(도영)	
자매 결연 (11점)	카리쵸(사가) - 여수(전남남도)		1977년
	시즈오카(시즈오카) - 대구(대구광역시)		1979년
	후쿠이(후쿠이) - 수원(경기도)		1983년
	토루야마(아마구치) - 마산(경상남도)		1984년
	오쓰(시가) - 구미(경상북도)		1986년
	시모노세키(아마구치) - 제주(제주도)		1987년
	오사카(오사카) - 부산(부산광역시)		1990년
	코후(아이나시) - 청주(충청북도)		1991년
	츠루가(후쿠이) - 동해(강원도)		1992년
	카이미나토(돗토리) - 김해(경상남도)		1997년
	카고시마(카고시마) - 전주(전라북도)		2002년
업무 협약 (7점)			
우호 친선 (2점)			
(출처: 일본 자치체 국제화 협회, 대한 상공회의소)			

24

### (2) 양국 상공회의소 교류 사례

#### 《사업 교류》

##### 【일한 상공회의소 정상화의】

1985년 이래, 양국 상공회의소 간의 교류 촉진과 우호 친선 등을 목적으로 13회에 걸쳐 일한 상공회의소 회장 회의를 개최.

2002년 일본 상공회의소와 대한 상공회의소에 의한 실무적인 회의로 변경. 회의소 운영에 관한 경험과 노하우 교류, 공동 사업 등을 연구·실시하고 있다.

#### · 대상 멤버

일본 상공회의소 회장·부회장 25명  
대한 상공회의소 회장·부회장 17명

<대한상공회의소> 1884년 설립,  
120년의 역사를 자랑. 회원은 전국 67개  
상공회의소 및 특별 회원 76社. 총 회원  
수 약 45,000社.

##### 【동아시아 10개 도시 경제인 회의】

1991년 이래, 대련·청도(중국), 인천·부산(한국), 기타큐슈·시모노세키(일본)의 6개 도시의 국제상사·

상공회의소가 「동아시아 6개 도시 경제인 회의」를 개최. 현재 10개 도시로 확대해 무역·투자 촉진, 경제 미션의 상호 파견, 전시회 등의 적극적 참가 등 경제 교류를 계속하고 있다.

#### · 멤버

일본 : 시모노세키, 기타큐슈,

후쿠오카 상공회의소

한국 : 인천, 부산, 울산 상공회의소

중국 : 대련, 청도, 친진, 연태 국제  
상사

★2002년 기타큐슈 회의에서 시장 회의와  
경제인 회의를 일원화 한 「동아시아 경제  
교류 추진 기구」 설립에 합의.

25

### 《비즈니스 교류》

#### 【오사카-한국 IT비즈니스 교류 네트워크(OK-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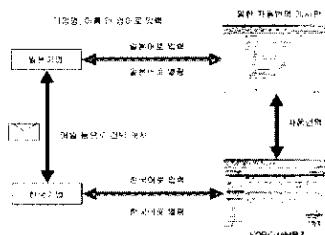
오사카 상공회의소에서는, 한국 T벤처와의 개별 매칭 사업을 시작해 성당회·교류회 개최, 한국 프로모션 실시, 한국 T벤처 정보 제공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 2003년 5월에 설치.

#### 【대한상공회의소 연수생 도입】

시작 연도 : 1997년도부터 실시  
실시 단체 : 가와사키, 요코하마  
상공회의소  
대상자 : 대한상공회의소가 소관하는  
직업훈련학교 졸업생 25명  
정도  
연수 내용 : 일본어 연수(2개월) 및 일본  
기업에서의 실무 연수(4개월)

#### 【일한 자동번역 거래 정보 개시판】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기업 정보  
데이터 베이스 「KorChamBiz」와  
오사카 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the business mall」이 제휴하여  
일한 자동번역 거래 정보 개시판을  
매개로 일한 양국간의 소규모 무역  
거래를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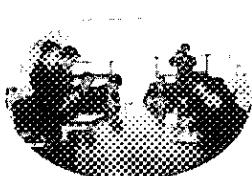


26

### 《관광 진흥 교류 등》

#### 【아오모리시-야오모리 상공회의소】

아오모리 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 바 운드·미션」(단원 20명)을 2003년 5월에 파견. 대형 여행사 등을 방문해 대한항공을 이용한 상호 교류의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여행 상품개발을 제안하는 등, 고객 유치 대책에 대해 의견 교환을 나눴다. 2004년 5월에 현(縣), 시(市), 경제계(經濟界)로 구성된 「한국 미션」이 파견될 예정.



#### 【야나이 상공회의소 -마산시】

경상남도·마산시로부터의 초빙받아  
야나이 시가 「2003 국민 생활 체육  
대회」의 전야제에서 “금봉어 초롱  
네부타”를 선보임. 야나이 상공회의소  
청년부의 2기를 포함해서 3기의  
네부타와 400개의 금봉어 초롱을  
마산시에 기증했다.



#### 【시모노세키 상공회의소 -

#### 부산 상공회의소】

매년 「리틀 부산 축제」를 개최해,  
울산·전통 에너 페스티벌 등을 실시.

27

### (3) 한일 FTA 시대를 맞이하여

#### <한일 교류 진흥의 향후 방향성>

우호교류  산업교류

• 지금까지의 교류 실적을 근거로 하여 자본, 무역, 기술, 인재 등 산업 교류의 활발화로 진화

- 양국 상공회의소의 역할
-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교류 지원
- Local to Local의 교류 지원

28

## 7. 지역 제조업의 공동화 대응 사례

### (1) 국내 대응형

#### ① 제품 품질 향상·차별화

##### ○ 기업개요

사업내용: 타올 제조업      소재지: 경기도 수원  
자본금: 2,400만원      종업원: 60명

##### ○ 구체적인 대처

- 독자적인 면사 개발
- 독자적인 방직기의 개발·개량
- 타사에서 모방할 수 없는 생산기술의 개발

##### ○ 대처의 성과

- 고품질, 단기납기, 저가격으로 인한 종합적인 상품력 강화

(자료)중소기업 금융공고 「중소 제조업의 공동화 대응 사례집」

29

## ②신 분야 개척

### ○기업개요

사업내용: 안경 제조업      소재지: 후쿠이현  
자본금: 1,000 만엔      종업원: 30 명

### ○구체적인 대처

- 눈의 피로를 경감하는 신제품의 개발
- 의료용 안경 렌즈 등 독자적인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
- 산학 연계로 인한 임상적인 효과를 검증

### ○대처의 성과

- 특수렌즈 제품의 개발로 인한 수주 증가
- 중소기업 창조활동 촉진법의 인증을 받아 한층 더 연구 개발을 추진함

(자료)중소기업 공동광고 「중소 제조업의 공동화 대응 사례집」

30

## (2) 해외 대응형

### ①본사는 연구개발, 중국은 양산품 생산에 의한 비용 절감

### ○기업개요

사업내용: 공업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본사 소재지: 토야미현      현지법인: 성천  
자본금: 4,000 만엔      종업원: 250명

### ○구체적인 대처

- 일본에서는 고정밀 다품종 소량 생산 제품의 수주,
- 중국에서는 소품종 대량생산 제품의 수주가 주체
- 연구개발은 일본 본사에서 실시함
- 본사는 중국 현지 법인에 대해서 경영·기술개발을 실시

### ○대처의 성과

- 수주처의 관계강화
- 비용절감에 의한 신규 거래처의 증가

(자료)중소기업 공동광고 「중소 제조업의 공동화 대응 사례집」 31

**② 해외생산·판매와 병행하여 국내 사업도 활성화**

**O 기업개요**

사업내용: 배선 기구·배선 부속품 제조업

본사 소재지: 후쿠시마현 현지법인 소재지: 산동성 외

자본금: 2억엔 종업원: 200명

**O 구체적인 대처**

• 「팔리는 곳에서 만든다」가 기본사항

(중국 내에서 수요가 있다면, 다음은 소량품이라도 중국 생산함)

• 연구개발은 일본 본사에서 실시

• 국내에서는 철저한 품질 관리에 의한 신용 강화

또한, 해외현지법인도 ISO등을 적극적으로 취득함

**O 대처의 성과**

• 그룹으로서의 수주 경쟁력 강화

• 안정된 매상 유지

(자료) 중소기업금융공고「중소 제조업의 공동화 대응 사례집」

32

## 8. 일본 제조업의 부활을 향해

### (1) 디지털 가전 톡수 수요가 설비 투자를 지탱

신 3종의 신기(神器) (슬링형TV, DVD플레이어, 디지털 카메라) 등

디지털 가전의 왕성한 수요가, 전기기계·전자 부품 산업 등의 설비 투자를 촉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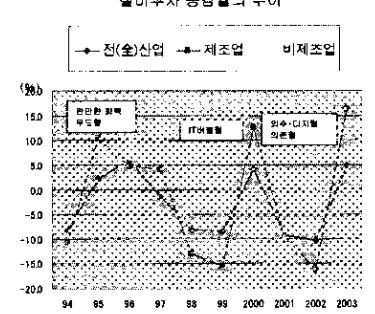
디지털 가전의 출하율의 추이



(자료) 경제산업성(기계 통계 확보),  
신차 경영기술 산업협회,

일본은행(물가지수 플러그인트레이드로  
일본 통계 연구소 작성)

설비투자 증감률의 추이



(자료) 일본 침체 투자 단행「설비투자 계획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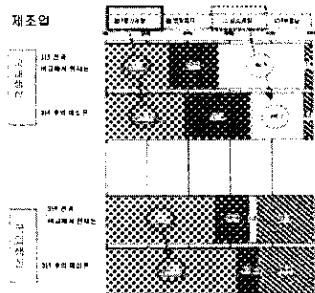
\*2003년도는 9월 시점으로 예상 수치임

33

## (2) 공장 입지의 국내 회귀의 움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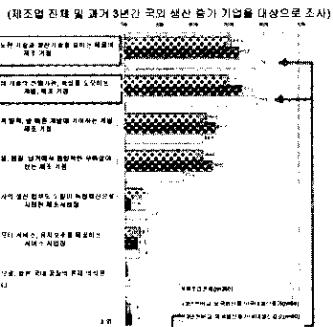
- (社)일본농률협회가 일본 주요 기업(5,415사)의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양케이트 조사에서는, 향후, 국내 생산의 증가를 예상하는 목소리가 높아, 공동화를 제어시킬 가능성이 있다.
- 국내 공장의 역할도 「고도 제품의 제조 거점」、「핵심 기술의 선행 개발 및 그 속성을 도모하는 개발·제조 거점」으로 하자는 의견이 많아, 생산 체계의 합리적인 지역 분리가 진행됨

국내와 「생산 수령」 동향



(자료) 일본 농률 협회「2003년도 당면한 기업경영 과제에 관한 조사」(2003년 11월)

향후 국내 공장이 완수 해야 할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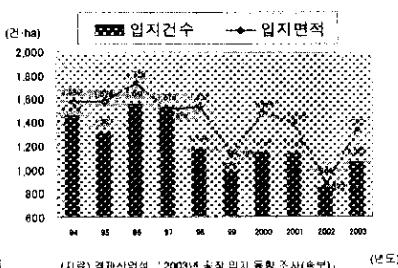


34

Next Answer

(참고 1) 공장 신설, 국내로 회귀

- 2003년의 국내 공장 취득 건수는 1,052건으로, 전년대비 약 25% 증가. 취득면적은 1,325 ha로 약 52%의 대폭적인 증가.
- 디지털 가전 메이커를 중심으로 국내 생산을 강화, 국내에서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지역 분리가 눈에 띈다.
- 국내의 공장 입지 건수·입지 면적의 추이



(참고 2) 니트 생산이 국내 회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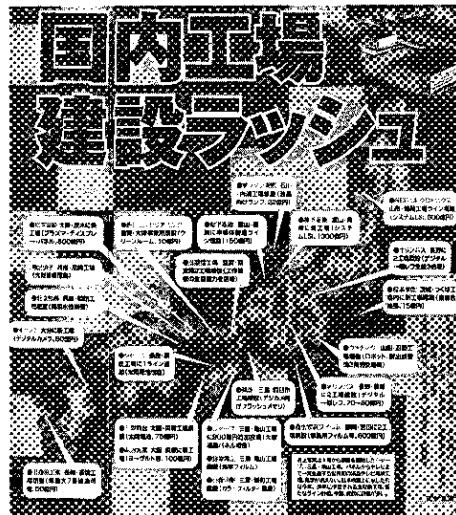
- 중국으로의 생산 거점 이전으로 공동화된 니트 재료 제조업이 국내로 회귀하는 움직임

대기업 어패럴 제조업체(주온위드  
가시야마)의 사례

- 편물기 메이커와 공동으로, 중국과 공동으로 저가격으로 생산 가능한 「무봉제 자동 편물(풀가먼트:무봉제 니트) 시스템」을 개발.
- 노동 비용 상승, 디자인 향상, 일본 국내 생산에 따른 꼼꼼한 상품 전략에 의해 고급 품·중급 품으로 경쟁력이 향상.
- 2005년에 전 생산량의 10%에 해당하는 연간 34만 벌을 일본 국내 생산으로 이동 시킨다.

35

(참고 3) 대기업 제조업 기업 등으로 의한 국내 공장 건설 리뷰



(자료) 주간 경제 - 2004년 2월 28일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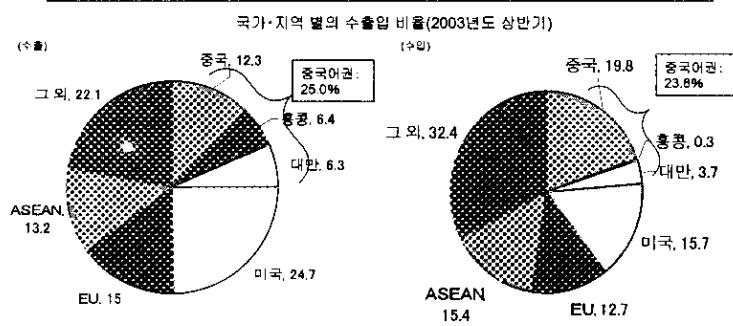
36

### (3) 중국은 「세계의 위협」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 중국어권으로의 수출 비율은, 미국을 제치고 전체의 약 4분의 1을 차지함
- 중국어권에서의 수입 비율에 대해서도, 약 4분의 1에 달하고 있다.



#### 수출입의 양면에서, 일본 경제가 중국어권 경제에 의존이 선명함



37

## 2. 韓國側 백그라운드 페이퍼

### 「韓國의 製造業 空洞化 現況 及 評價」



河炳基  
産業研究院 産業競争力室 室長

#### 1. 서론

##### (1) 논의의 배경

기업의 해외이전으로 한국 경제에서 제조업 공동화현상이 야기될 것이라는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내의 기업 및 투자 환경 악화로 기업이 해외로 생산을 이전함에 따라 4-5년 이내에 한국 경제에서 제조업이 붕괴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한국 경제에서 공동화가 진행 중이라는 주장도 있다.

경기 회복이 불확실한 가운데서 제조업 공동화론은 경제 불안과 위기감을 심화시키고 있다. 한국 경제가 제조업의 성장과 수출입에 크게 의존하여 왔기 때문에 제조업에 구멍이 뚫린다는 공동화 단어 그 자체가 위기감을 야기한다. 게다가, 서비스업의 경쟁력이 아직 국제적인 수준에 비추어 미약하다고 인식되는 상황 하에서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불안케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90년대 초반 및 90년대 중반에도 제기된 바 있었다. 다만, 지금과의 차이점은 그 당시 경기가 지금처럼 부진하지 않았으며 바로 빠른 속도로 회복되면서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단기간에 그쳤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한국 제조업의 공동화 현황 및 미래 가능성은 평가하고 점검하고자 한다.

##### (2) 개념 및 논의의 촛점

탈공업화(de-industrialization)는 경제전체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이 저하되어 가는 현상을 의미하며, 탈산업화로 번역하기도 한다. 탈공업화와 혼용되어 사용되는 개념으로 제조업 공동화(hollowing-out)가 있다. 제조업공동화는 해외 투자로 인하여 제조업의 비중이 저하되어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약화되어 가는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탈공업화는 선진국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산업구조의 변천으로 인식되고 있

다. 제조업 비중이 일시적이 아니라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대내적인 요인으로는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서비스 수요의 증가와 제조업과 서비스업과의 생산성 격차를 지적할 수 있다. 대외적인 요인으로는 무역과 해외직접투자가 꼽힌다. 제조업 비중 저하의 가장 큰 요인은 생산성 격차이며, 대내적인 요인이 비중 저하의 80-90% 정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외에 제조업에서 물류, 광고, 마케팅 등의 지원서비스업이 분화되면서 통계적으로 제조업의 비중이 낮게 산정되는 현상도 지적된다. 결국 제조업 공동화는 탈공업화의 개념에 원인과 결과의 범주를 좁혀서 정의하는 것으로 협의의 탈공업화라고도 할 수 있다. 탈공업화의 부정적인 현상의 하나를 제조업 공동화로 인식할 수도 있다.

제조업 공동화는 직역하면 경제에 구멍이 뚫린다는 의미로 단어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주로 언론에서 많이 사용되고 논리적이기보다는 자극적이고 감성적인 단어이다. 그 결과 제조업 공동화가 제조업의 역할이 축소된다는 문제 제기시 피부에 와 닿기에 탈공업화보다 제조업 공동화가 더 많이 활용된다.

개념의 논리성을 떠나 현재의 제조업 공동화는 현실적으로 제조업이 경쟁력을 상실하여 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다.

다만, 제조업 공동화는 해외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유발하여 해외투자 정책을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 즉,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높을 경우 필요한 해외투자 지원책을 사용하기가 힘들고 그 결과로서는 지원의 필요성이 큰 중소기업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표 1> 제조업 공동화와 탈공업화의 논리적 개념 비교

	탈공업화	공동화
시각	현상(결과) 설명 가치중립적 선진국화의 당연한 현상	명제 부정적 가치부여 언론적인 개념
원인	수요, 생산성 격차, 대외요인(무역, 해외투자 등) 등의 다양한 요인 대내요인이 주인	해외투자
논리적인 대응책	경쟁력 제고 정책과 구조조정 정책	기업 해외투자 방지 혹은 억제책
비고	공동화와 혼용하여 사용	중소기업의 해외투자에 악영향 (정책 대응 및 민간 대응)

## 2. 제조업의 역할

한국경제가 제조업 수출을 통하여 성장하여 왔으며 미래의 성장 축도 제조업이므로 제조업의 사양화는 장래 경제성장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조업의 역할을 먼저 살펴본다. 경제성장 위협여부는 제조업 비중의 저하가 선진국으로 가는 산업구조조정의 자연스러운 결과인가 혹은 기업의 해외이전에 따른 결과인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 (1) 고용

총 고용(취업자 기준)에서 차지하는 제조업 고용의 비중은 1989년 27.8%로 최고를 기록한 이후 계속 하락하여 2003년 현재 19.0%까지 낮아졌다. 이는 2000년 EU 평균(20.6%) 및 일본(20.5%)보다 낮은 수준이나, 2001년 미국(12.6%)보다는 높다. 제조업 고용 비중만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결국 고용 측면에서는 90년대 이후 제조업의 비중이 저하되는 탈공업화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고 평가할 수가 있을 것이다. 절대 취업자 수에서도 2001년 이후 연속 3년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다.

제조업 부문별 고용구조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경공업 비중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높다. 제조업 총고용에서 차지하는 경공업 비중이 한국이 47.3%(2001년)인데 비해 미국과 일본은 이보다 낮은 39.4%(1998년)와 24.0%(2000년)이다. 경공업 부문의 고용 유지가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경공업 부문에서 노동 이탈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표 2> 제조업 부문별 고용구조의 국제비교

단위 : %

		한국(2001년)	일본(1998년)	미국(2000년)
제조업	경공업	47.3	39.4	40.4
	중화학공업	52.7	60.6	59.6
구 조	(기초 소재)	18.6	21.7	24.7
	(조립 가공)	34.1	38.9	34.9

자료 : OECD, STAN Database  
한국은행

### (2) GDP

#### 1) 비중

명목 GDP(국내 총생산)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8년 32.1%에서 외환 위기가 발생한 1997년까지는 계속 감소하였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증가세로 반전하였지만 다시 2001년부터 감소세로 재반전하여 2002년에는 28.8%로 낮아졌다. 외환 위기로 일인당 소득이 감소하면서 제조업의 비중도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 경제의 일인당 소득이 1997년과 2001년에 비슷하다는 점에서 이 비중이 감소추세에 재진입하였다고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질 GDP로 측정할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85년 24.8%에서 2001년과 2002년에는 33.4%로 증가한 것이다. 제조업의 비중이 축소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는 탈공업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가 없다. 실질 기준에 따른 이러한 제조업 비중의 증가는 제조업이 경제성장을 주도하여 왔으며 경제내에서 제조업의 역할이 감소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표 3> 주요 지표의 추이

연도	취업자 수 (제조업비중)	명목 GDP (제조업비중)	실질 GDP (제조업비중)	경제 성장률	단위 : %
					총고정자본 형성증가율
1985	23.4	29.5	24.8	6.5	4.3
1990	27.2	28.9	28.0	9.0	25.9
1995	23.5	29.2	29.2	8.9	11.9
1997	21.2	28.7	29.5	5.0	-2.2
1998	19.5	30.5	29.0	-6.7	-21.2
1999	19.8	30.6	31.8	10.9	3.7
2000	20.2	31.3	33.8	9.3	11.4
2001	19.8	30.3	33.4	3.1	-1.8
2002	19.1	28.8	33.4	5.3	4.8

주 : 고용비중은 1989년 27.8%로 가장 높으며, 명목 GDP는 1988년 32.1%로 가장 높음.

자료 : 한국은행

## 2) 성장

산업별로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바를 살펴보면, 제조업의 기여도가 외환 위기 이후 평균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이 경제 전체 성장에 기여한 비율은 80년대의 34%에서 90년대에는 31.9%로 낮아졌다. 하지만 1997년 이후에는 이 비율이 49.1%로 높아져 제조업의 성장 기여도가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외환 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회복에 제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성장 기여도는 바로 앞서 살펴본 제조업 비중의 상향으로 반영되었다.

<표 4> 산업별 성장 기여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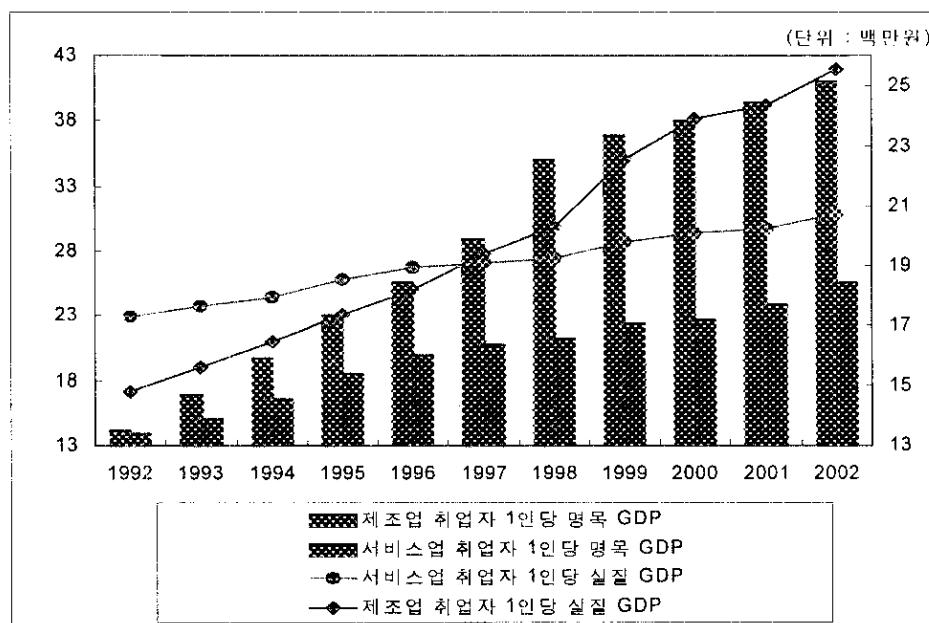
	1981 - 90	1991 - 97	1997 - 2002
제조업	34.0	31.9	49.1
서비스업	61.9	65.0	51.6
농업 및 광업	4.1	3.1	-0.7
합 계	100.0	100.0	100.0

### 3) 생산성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일인당 부가가치를 비교하여 보면, 제조업의 생산성이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취업자 일인이 생산한 부가가치(명목 GDP)의 두 산업간 격차는 1998년 이후 계속 확대되어 오고 있다. 1992년 제조업의 취업자 일인당 명목 GDP가 1,420만원으로 서비스업보다 30만원 많았었다. 2002년에는 이 수치가 4,110만원으로 서비스업보다 1,550만원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제조업 취업자의 연령이 높다거나 혹은 서비스업의 종사자가 저부가가치 직종이 많다는 점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근원적으로는 부가가치 창출에서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우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역으로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제조업에 비해 낙후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림 1> 일인당 GDP 생산액



### (3) GDP 및 고용의 비교 평가

제조업의 고용 창출 능력이 낮아졌지만 제조업의 부가가치 창출 능력은 저하되지 않았다. 그 결과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과 고용 비중간의 편차가 1990년 이후 확대되어 오고 있다.

부가가치비중의 대고용비중 비율을 보면, 한국의 경우 1.52(2001년)로 OECD 국가 평균(1.1)보다 매우 높다. 이는 우리 경제가 최근까지 겪은 산업구조조정의 특색이라 할 수 있다. 반도체, 통신기기 등 IT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기술집약적인 산업 위주로 산업구조가 급격히 재편되면서 제조업의 부가가치 창출 능력은 강화된 반면, 자본 위주의 요소투입구조 변화와 기술진보에 의한 노동생산성 향상 등으로 고용창출력이 많지 않았다.

우리 경제의 이러한 현상은 제조업 생산의 비교우위가 높고 서비스업의 비교우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비제조업과 제조업의 불균형 발전으로 상호 보완성이 낮아 양 산업이 상호연관효과를 얻기 힘들 가능성이 높다.

<표 5> OECD 회원국의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의 비중 변화

단위 : %

	부가가치 생산비중(A)		고용비중(B)		A/B	
	1960	1995	1960	1995	1960	1995
제조업	29.7	19.8	26	18	114	110
서비스업	52.6	68.2	43	65	112	159

주 : GDP 및 총고용에서 점하는 비중.

자료 : OECD(1999).

### (4) 제조업 비중 전망

2001년 이후 국내투자 부진 등과 더불어 명목 부가가치 및 고용 등에서는 제조업의 비중이 소폭 낮아졌다. 소득 증가와 함께 서비스수요가 증가할 것이므로 최근의 이러한 움직임이 추세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만, 실질 부가가치 기준으로 제조업 비중의 향방에 대한 예측은 다소 까다롭다. 하지만, Rowthorn(1999)의 연구가 제시한 바와 같이 소득 증가에 따른 서비스 수요 확대 그리고 제조업과 서비스업과의 생산성의 차이를 고려하면 명목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제조업 비중의 장기적인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하여 다음과 같은 요인은 한국경제에서 제조업 비중이 하락하는 방향으로 예상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단지, 어느 정도의 속도로 진행될 것인가가 중요하다.

첫째, 90년대 IT산업의 호조와 90년 중반 이후 건설업 부진으로 제조업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였으나, IT 산업을 대체할 신산업의 조기 출현을 기대하기가 힘들다.

둘째, 명목GDP 기준 제조업 비중이 1988년 32.1%를 최고로 감소하는 추세이었다가 외환위기로 전환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락추세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2002년에는 일인당 소득이 1만 달러를 회복함으로써 과거의 감소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더욱 크다.

셋째,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과 고용비중과의 현재의 격차는 계속 유지되기가 힘들 것이다.

넷째, Rowthorn(1999)이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국내투자의 대 GDP 비중 저하는 제조업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제조업 비중의 저하는 <표 6>에서와 같이 여타 선진국의 사례를 통하여 예상할 수 있다.

<표 6> 소득수준별 선진국의 산업구조

국 가	연 도	산업구조(%)				1인당 GDP (달러)
		농림수산 및 광업	제조업	사회간접 자본	서비스업	
한 국	2001	4.8	30.0	11.1	54.1	8,900
일 본	1980	4.1	28.2	11.6	56.0	9,069
	1987	2.9	26.9	11.5	58.6	19,806
	2000	1.4	20.8	9.7	68.1	37,542
	1977	5.4	22.8	7.3	64.6	8,962
미 국	1988	3.6	19.2	7.5	69.6	19,912
	2001	2.8	14.1	7.0	76.1	35,401
	1982	10.0	23.7	8.9	57.5	8,631
영 국	1996	4.5	20.5	7.2	67.8	19,621
	2000	4.0	18.6	7.1	70.3	24,060
	1978	3.4	31.9	8.9	55.8	9,177
독 일	1990	2.1	29.3	7.8	60.8	20,665
	2001	1.5	22.2	6.6	69.7	22,500

### 3. 공동화 평가

#### (1) 국내 투자

GDP 중 설비투자는 2001년에 전년 대비 9.6% 감소한 데 이어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제조업 생산능력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최근 회복기미가 있기는 하지만 투자가 계속 부진하여 생산능력의 저하와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를 심화시킨다.

특히, 90년대 들어 GDP대비 투자비율인 투자율이 80년대의 30% 수준에서 20% 수준으로 하락함으로써 추세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높아지고 있다.<sup>1)</sup> 이러한 투자 부진의 결과, 고정자본소모액의 대총고정자본형성의 비율이 1998년 이후 커짐으로서 국가전체의 생산능력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이 비율은 70년대의 25.5%에서 2003년 1/4분기에는 43.5%로 높아졌다. 자본소모액이 신규 투자액에 비해 높다는 것은 생산능력의 증가속도가 둔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조업 생산 능력 증가율은 70년대의 연평균 15.6%에서 2003년 1/4분기에 2.5%로 하락하였다.

국내투자의 부진은 과거 투입주도형 성장에서 혁신주도형 성장으로 나아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최근의 부진은 내부 경제환경의 불안정성에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금리인하 등의 정부 정책이 유효하지 못한 것은 기업환경 및 정책에 대한 기업가 및 민간의 불확실성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7> 투자 관련 지표

단위 : %

	1971-80	1981-90	1991-97	1998-00	2001-03
고정자본소모 / 총고정자본형성	25.5	32.2	29.2	43.6	42.7
제조업 생산능력 증가율	15.6	8.2	5.7	7.9	3.2

주 : (고정자본소모/총고정자본형성)은 기간 평균비율, 생산능력 증가율은 연평균 증가율임. 단, (고정자본소모/총고정자본형성) 비율의 2001-02년 기간의 2002년 1/4분기까지의 평균치임.  
자료 : 한국은행 및 통계청

현재의 투자 부진이 계속될 경우 자칫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의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우리 경제의 기업 환경에 대해서는 다양한 국제기관이 미국 등의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노사관계의 경우에

1) 국가의 자본스톡이 증가하면서 투자율이 저하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미국, 영국, 핀란드등 선진국의 투자율은 15-22% 수준임. 일본도 90년대 중반이후 하락하여 25%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는 IMD는 비교대상국 중 최하위로 평가한 바 있다. 규제와 관련한 설문 조사<sup>2)</sup>에 의하면, 응답기업의 48.7%가 기업 규제로 인해 투자를 철회하거나 보류하였다고 응답할 정도이다. 규제로 가장 큰 경영 애로분야로는 신규사업 진출(26.3%)과 설비투자(18.2%)이고, 그 다음으로 인력구조조정(17.2%)을 들고 있어 노사분야 규제에 관해서도 기업들이 크게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 기업환경 및 노사관계

기업환경 순위	노동쟁의		노사관계 순위 <sup>3)</sup>	노동시장의 유연성 순위 <sup>3)</sup>
	생의발생건수 <sup>4)</sup>	노동손실일수 <sup>5)</sup>		
한 국	18	226.4	113.6	30
일 본	13	99.7	1.4	1
미 국	1	30.0	70.4	8
중 국	7	-	-	20
				13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ILO, IMD(2003)

주 : 1) 연평균 노동쟁의 발생건수. 한국은 1998-2002년, 일본은 1998-1999년, 미국은 1998-2000년 평균임.

2) 피용자 1,000명당 노동쟁의행위로 인한 노동손실일수. 한국은 1998-2002년, 일본 및 미국은 1998-2000년 평균임.

3) 인구 2000만명 초과 30개국 중의 순위

## (2) 국제직접투자

### 1) 동향

국제직접투자는 최근에는 양 투자 저조한 수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해외직접투자는 2001년 50억 4천만 달러의 기록적인 수준에서 감소하여 2002년과 2003년에는 30억 달러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감소 폭은 특히 심하다. 2000년엔 101억 9천만 달러였던 것이 2002년에는 36억 8천만 달러로 감소하였다. 양 투자 모두 부진한 가운데 외국인 직접투자의 부진이 심한 형편이다.

직접투자수지(=외국인 투자 - 해외직접투자)는 2002년까지 총 97억 8천만 달러의 흑자를 나타내었다. 직접투자수지는 90년대에 접어들어 기업세계화로 적자로 반전되었다가 외환위기 이후 성공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흑자로 돌아섰다. 2001년 이후에는 양 투자가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2001년 들어 13억 8천만의 투자 수지 적자로 반전되어 제조업

<sup>2</sup> 2003년 대한상의 조사

공동화 논거의 한 근거로 지적되고 있다. 산업별로는 경쟁력이 있는 전자통신장비업종에서 2001년 해외 직접투자가 외국인 직접투자를 19억 달러나 초과함으로써 제조업 부문의 적자를 주도하였다. 2001년 중 전자통신장비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9억 달러로 제조업 중 외국인의 투자가 가장 활발한 업종이자 또한 해외투자가 가장 활발한 업종이다.

최근의 해외직접투자의 특징으로는 2000년 이후에는 투자 건수(신규 해외법인의 수)가 계속 신기록을 경신하여 오고 있다는 점이 과거와는 크게 다른 점이다. 투자 액수가 감소한 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직접투자 건수는 1999년 1,098건에서 계속 증가하여 2003년에는 2,717건을 기록하였다. 주로 대중국 투자 건수의 증가에 의한 것이다.

<표 9> 국제직접투자의 최근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외국인 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		투자수지	
	전체	제조업	전체	제조업	전체	제조업
1995	1,364	657	3,136	2,049	-1,773	-1,392
1996	2,316	1,230	4,409	2,814	-2,093	-1,584
1997	3,090	1,790	3,594	1,807	-504	-17
1998	5,279	2,982	4,726	2,319	554	663
1999	10,805	6,824	3,279	1,664	7,526	5,159
2000	10,186	5,883	4,860	1,433	5,326	4,450
2001	4,839	2,374	5,041	3,755	-202	-1,381
2002	3,680	1,459	3,055	1,552	626	-93
2003	-	-	3,514	1,785	-	-
2004	51,128	28,315	44,401	23,680	-	-

주 : 1) 외국인 직접투자는 도입기준, 해외직접투자는 총투자기준임.

해외직접투자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최근 들어 중소기업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외환 위기 전후로 하여 중소기업의 제조업 해외현지법인 투자 비중이 금액 및 건수 양면에서 모두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2년과 2003년에는 총투자 누계액의 평균치인 24.7%의 두 배 수준인 46.0%와 54.2%로 높아졌다. 이는 우리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세계화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국내의 열악한 기업 및 투자 환경도 일조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공단 입주 중소기업의 22.4%가 2002년 중 장래 해외이전을 고려한 반면에 대기업의 10.3%만이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것은 이를 반영한 것이다. 80년 대 말 봉제 및 신발산업의 해외이전이 임금의 급상승 때문이었다는 사실에서 비용 급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표 10> 중소기업의 제조업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중소기업		전 기업 대비 비중(%)	
	투자 금액	건수	투자 금액	건수
1990	117	127	24.1	64.8
1991	148	199	24.4	71.6
1992	214	283	32.5	82.0
1993	290	448	51.9	86.2
1994	432	921	29.0	83.8
1995	508	764	24.8	80.2
1996	580	680	20.6	66.0
1997	324	616	17.9	69.9
1998	197	257	8.5	68.2
1999	216	418	13.0	61.2
2000	446	761	31.1	71.9
2001	582	889	15.5	70.8
2002	714	1,098	46.0	71.2
2003	967	1,243	54.2	72.1
누계	5,840	8,882	24.7	72.2

국가별 특징으로는 2002년 이후에는 중국이 우리 기업의 최대 투자 대상국으로 부상하면서 중국 경제가 블랙홀의 역할을 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03년 말 현재 대중국 총 투자의 누적액은 전체 투자의 18%인 80억 달러로 과거 투자가 많았던 미국 다음으로 많다. 건수로는 2003년까지 9,086건으로 중국 투자가 전체 투자의 46%를 차지하여 최대 투자 대상국이다. 우리 기업이 가장 빈번하게 투자하는 국가가 중국이라는 의미이다. 지리적 문화적인 근접성, 경제 성장 잠재성 그리고 낮은 임금 등으로 미루어볼 때 매력적인 투자처임에 분명하다. 최근에는 금액 및 투자 건수에서 더욱 중국에 집중되고 있다.

최대 투자 대상국으로 부상한 중국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도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의 성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데다 ASEAN 등과 중국과의 자유무역 협정 가능성이 커짐으로써 중국 시장의 잠재력이 투자 수요를 유발하고 있다. 중국의 성장세가 이어지는 한 중국은 투자 액수 및 건수에서 계속 우리 기업의 최대 투자 대상국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리적으로 가까운데다 경제적으로도 상호 무역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어 중국에 대한 투자 집중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다만, 위안화가 예상외로 큰 폭으로 절상되어 중국 경기가 후퇴할 경우에는 투자 수요가 감소하거나 혹은 청산 등으로 철수하는 기업의 수가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단순히 국내 투자 및 기업환경 악화로 최근 해외투자에 나선

기업이 상당수에 달한다고 보면, 이들 기업의 해외 경영이 열악할 수밖에 없어 경기 후퇴에 민감할 것이기 때문이다.

<표 11> 대중국 투자 추이 및 구조

단위 : 건수, 백만 달러, %

	전 업종		제조업		전 지역 대비 비중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 업종		제조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92	170	141	160	117	34.2	11.6	46.4	17.9
1993	381	264	355	251	55.4	20.9	68.3	44.9
1994	841	633	703	581	56.5	27.5	64.0	39.0
1995	751	841	651	714	56.6	26.8	68.3	34.8
1996	733	901	637	713	50.0	20.4	61.8	25.4
1997	630	726	547	493	47.7	20.2	62.1	27.3
1998	263	678	223	586	42.8	14.3	59.2	25.2
1999	457	349	411	288	42.0	10.6	60.2	17.3
2000	766	615	665	463	37.2	12.7	62.8	32.3
2001	1,034	582	892	539	48.7	11.5	71.0	14.4
2002	1,336	896	1,142	786	55.3	29.3	74.0	50.6
2003	1,623	1,305	1,343	1,136	59.7	37.1	77.9	63.6
누계	9,086	7,995	7,822	6,731	46.0	18.0	63.6	28.4

## 2) 세계화

우리 경제의 해외직접투자는 선진국 등 여타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다. 1999년 해외직접투자의 대GDP 비중은 1.2%(2002년은 0.5%)로 내수의존형인 미국(1.5%) 및 일본(1.5%)과 비슷하나 무역의존형인 스웨덴(7.6%) 및 네덜란드 경제(14.3%)에 비해서는 낮다. 해외직접투자 stock의 대GDP 비율은 2000년 말 현재 개도국 평균(11.9%)에도 못 미치는 5.8%(2002년은 6.5%)에 지나지 않는다.

<표 12> 국제직접투자 Stock의 대GDP 비율(2000년 기준)

단위: %

	선진국	개도국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아일랜드
			1995	2000	2002						
외국인투자	17.1	30.9	1.9	8.0	9.2	12.4	1.1	30.5	65.9	36.1	68.2
해외투자	22.1	11.9	2.1	5.8	6.5	13.2	5.8	63.2	83.8	53.8	19.4

주 : 1) 한국은 수출입은행 및 산업자원부의 잔액 기준 투자액 기준임.

자료 : UNCTAD

또한 한국 다국적 기업의 해외생산비율(현지법인 매출액/모기업 매출액)이 2002년 중 12.7%로 일본의 37.2%에 비해서는 크게 낮다. 다만,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높아 무역 측면에서는 세계화가 상당수준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경제의 무역의존도가 66%로 일본의 18.8%, 미국의 17.8%에 비해 높으나, 대만의 107.2%에 비해서는 낮다. 해외시장 진입을 위해 해외직접투자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외직접투자 확대의 여지가 크다고 하겠다.

### 3) 투자의 목적 및 원인

80년대 한국 기업은 주로 자원개발을 목적으로 해외로 진출하였다. 자원개발을 목적으로 한 투자가 총투자(신고기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건수 기준으로는 88.8%, 금액 기준으로는 61.3%에 이르렀다.

하지만, 90년대 들어서면서는 자원개발을 목적으로 한 투자의 비중이 크게 낮아졌다. 투자 건수 기준으로는 비중이 5%미만으로 낮아졌다. 이는 한국 경제의 개방화 및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해외생산에 참여하는 기업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자원개발을 목적으로 한 투자가 절대적으로 감소한 것은 아니다.

<표 13> 주요 투자 목적의 구조 추이

단위 : %

	전체				중국			
	수출촉진		저임금		수출촉진		저임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92	50.2	30.8	30.7	15.3	43.7	48.5	45.7	46.2
1993	50.4	66.2	36.6	23.1	44.0	54.9	46.6	42.0
1994	50.6	66.0	37.3	13.6	44.6	56.9	45.5	34.9
1995	53.4	75.0	32.9	12.9	45.0	59.6	45.3	27.6
1996	47.0	51.2	37.9	9.8	39.0	44.8	53.5	26.6
1997	48.7	52.3	33.6	12.6	37.6	49.6	52.8	32.6
1998	59.0	81.2	26.7	9.1	47.1	66.4	41.2	24.5
1999	51.2	54.5	27.3	12.0	41.2	55.8	46.5	31.9
2000	53.7	44.1	24.0	13.5	49.4	51.3	42.6	26.5
2001	55.9	80.1	29.2	8.2	46.6	52.4	44.1	39.7
2002	51.6	58.1	34.9	26.3	45.0	56.6	45.2	32.6
2003	47.9	28.3	38.6	18.1	42.5	48.8	47.3	40.0
누계	46.2	54.3	28.1	9.0	43.9	53.3	45.6	32.6

주 : 1) 신고기준임.

2) 기타 목적을 제외하고 비중을 계산하였음.

자료 : 수출입은행

90년대에는 수출확대를 목적으로 한 투자와 저임금 활용을 위한 투자가 대종을 구성하고 있다. 저임금 활용은 산업구조조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내 생산에서 비교우위가 없는 품목을 기업이 해외에서 생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90년대 전 세계 투자 동향에서 보면, 중반에 저임금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의 비중이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지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 다시 산업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90년대 초반 저임금 활용의 비중이 높았던 것은 80년대 말의 임금 급등으로 섬유, 신발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데 따른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현재의 추세는 산업내 구조조정(산업중 세부 업종별로 경쟁력이 약화되어 가고 있는 품목의 해외생산이 추진되는)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중국에 대한 투자의 경우는 전세계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임금 활용의 투자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해외투자목적 변화 추이로 미루어 90년대 초와 유사한 해외투자 확대 가능성 및 개연성이 크다고 하겠다.

#### 4) 무역 효과

국제직접투자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통하여 세계경제의 복지를 향상시킨다. 기업은 최적의 입지에서 영업함으로써 경쟁력을 유지하고 또한 투자를 통하여 성장하여 간다. 그 결과로 일국 경제도 경쟁력을 유지하고 성장하여 간다. 해외직접투자의 긍정적인 측면이다.

특히,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해외생산은 모기업과 해외현지법인간의 기업내 거래를 통하여 수출수요를 확대하고 무역수지를 개선함으로써 제조업 비중의 저하 속도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수출입은행 조사에 의하면, 2001년 1,000만 달러 이상 투자한 311개 현지법인에 대한 수출이 276.3억 달러, 수입이 78.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97.8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개선한 것이다 (2001년 전체무역흑자는 93.4억 달러임.) 이는 투자잔액 1달러 당 1.55달러의 수출촉진, 1.11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에 해당하는 것이다.

특히, 제조업 공동화의 주요 위협 요인으로 지목되는 대중 투자도 무역수지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 및 아세안 현지법인과의 수출입으로 인해 2002년 중 무역흑자는 18.1억 달러에 달한다. 對현지법인 수출이 32.8억불인데 반해 현지법인 수입은 14.7억불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 토대로 조사법인의 투자금액(50.3억불)을 조사국가에 대한 제조업 투자금액(99.2억불)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투자유발 무역수지는 35.7억불로 추정되었다. 이는 조사국가와의 총 무역흑자

의 45.6%에 달한다.

이러한 효과는 해외투자가 수출확대 및 무역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해외투자기업의 전시효과 등을 통한 수출 촉진, 경쟁력 강화 효과 등을 포함할 경우 해외투자가 경제에 미치는 이익은 일층 확대된다.

다만, 구조조정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특정산업 혹은 지역에서 기업의 해외이전이 집중될 경우에는 사회 및 경제적 문제화될 가능성이 크다. 경쟁력이 한계에 있는 업종, 예를 들면 가정용 전자업종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서 이러한 가능성이 높다. 80년대 말 그리고 90년대 초 해외이전으로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되었던 신발산업의 부산지역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구조조정을 급속하게 촉진시킬 수 있는 외부 요인으로는 FTA와 같은 해외시장 규모의 변화나 비용구조의 급변을 들 수 있다. 80년대 말 이후 봉제 및 신발산업에서 해외투자가 급격히 진행된 것은 80년대 말의 임금 급등 때문이었던 것이 그 예이다. 또한, 현재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과의 국제분업은 계속하여 한국 경제에 구조조정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5) 전망

투자 목적에서 나타나는 변화, 즉 구조조정의 가능성과 우리 기업의 세계화 수준을 고려할 경우 해외직접투자가 조만간 외국인 직접투자를 크게 상회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Dunning이 주장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해외투자가 증가한다는 투자발전단계설과도 부합된다.

다만, 투자의 양태는 과거와는 다소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첫째는 산업내 구조조정의 형태에 따른 것으로 동일한 산업내에서도 사양화되는 산업이 저임금활용을 위해 개도국으로 이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산업내의 가전 등이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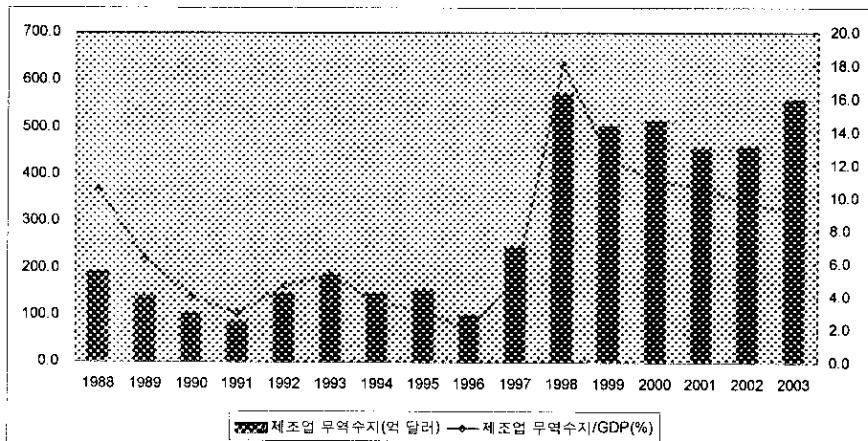
둘째는 대기업이 신규투자만이 아니라 글로벌 전략하에서 현지법인을 조정하는 투자가 빈번히 나타날 것이다. 2001년 LG전자가 중국 및 인도에서 청산한 자금으로 네덜란드에 투자한 예가 그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해외법인이 청산되는 경우가 빈번할 것이다.

## (3) 무역

한국의 무역수지는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에 390억 달러의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한 이후 2001년 93억 달러까지 축소되었지만, 그 이후 증가하여 2003년에는 150억 달러로 확대되었다. 특히, 제조업의 무역수지는 계속하여 흑자를 유지하여

왔는데 1998년 572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2003년에는 558억 달러로 다시 증가추세이다. 무역 수지부문은 즉, 해외수요는 제조업 비중의 저하를 방지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 제조업 무역수지의 추이



제조업 공동화의 가장 위협요인인 중국과의 무역관계를 보면, 수출의 경우 2002년 30.6%, 2002년 47.8%나 성장하여 전체 수출을 주도하여 오고 있다. 2003년에는 351억 달러로 미국을 제치고 최대의 수출국으로 부상하였다. 무역수지 흑자도 계속 확대되어 2003년에 132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제까지의 무역수지 추이 그리고 수출 측면에서는 중국은 한국의 제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무역구조 측면에서는 점차 한국과의 산업내 분업이 확대되어 점차 양국간 경쟁관계가 심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제조업 수출에서 경공업의 비중이 점차 1998년 이후 낮아지는 가운데 중화학 공업, 그중에서 IT 제품의 수출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1995년 3.7%에서 2003년에는 30.1%로 커졌다. 수입의 경우에도 IT제품의 수입 비중이 같은 기간 중 4.3%에서 25.2%로 높아졌다. 무역수지 구조로 보면, 경공업제품의 수자가 2002년을 기점으로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1차 산품의 적자는 확대추세이다. 반면, IT 제품을 포함한 중화학공업제품의 경우에는 2000년 이후 수출이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수입의 2배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2003년 중 중화학공업제품 및 IT 제품의 무역흑자가 각각 178억 달리와 61억 달러에 달하였다.

이러한 대중국 무역은 경공업 부분의 위축을 가져오며, IT를 포함한 중화학공업에서도 비용 면에서 경쟁력이 약한 부분의 사양화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이러한 부분이 현재까지는 노동집약적인 분야라는 점에서 제조업의 고용 흡수 능력을 저하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의 대중국 무역이 어느 정도 어떠한 형태로 전개될 것인가는 규명되어야 할 과제이지만, 현재의 추세대로 진행된다면 중국 기업과 한국 기업과의 경쟁관계는 계속 심화될 것이다. 그 결과 한국 경제에서 제조업의 고용 흡수 능력의 저하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며, 경쟁력이 한계에 있는 기업 및 산업의 경우 구조 조정 압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14> 대중국 제조업 수출입 구조

단위 : %

	수출			수입		
	경공업	중화학공업		경공업	중화학공업	
		전체	IT		전체	IT
1992	14.5	74.3	3.6	39.3	51.4	1.4
1993	13.3	75.7	4.5	44.3	45.2	3.3
1994	20.3	67.0	4.3	34.2	48.4	3.4
1995	22.6	67.6	3.7	31.4	59.8	4.3
1996	25.9	67.1	4.9	36.6	62.1	7.1
1997	27.6	69.3	6.8	33.7	64.5	9.6
1998	34.8	72.8	8.3	54.3	68.4	17.0
1999	23.6	73.8	13.0	21.7	70.9	24.9
2000	19.4	76.5	16.6	20.5	71.1	24.0
2001	23.8	78.1	16.4	27.3	70.1	23.3
2002	16.8	82.8	27.9	22.7	70.1	22.1
2003	11.6	87.7	30.1	23.5	73.3	25.2

자료 : KOTIS

<표 15> 무역수지 구조

단위 : 백만 달러

	전산업 무역수지	경공업 제품	중화학공업 제품	IT 제품	1차 산품
1992	-1,071	-297	928	66	-1,702
1993	1,222	33	2,868	156	-1,679
1994	740	196	2,388	143	-1,844
1995	1,742	560	2,581	84	-1,398
1996	2,839	1,252	3,544	91	-1,958
1997	3,456	1,544	4,585	215	-2,673
1998	5,460	1,712	5,342	174	-1,594
1999	4,818	1,542	5,131	58	-1,856
2000	5,656	1,472	7,028	687	-2,844
2001	4,888	875	6,839	565	-2,826
2002	6,354	-21	9,979	3,552	-3,604
2003	13,201	-337	17,827	6,102	-4,289

자료 : KOTIS

## 4. 한일FTA의 영향

### (1) 한일FTA의 경제적 효과

한일FTA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연구마다 상이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하지만, 1) 관세철폐는 한국의 후생과 무역수지를 악화시킬 수 있고, 2) 한국의 중화학 공업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있으며, 3) 일본으로부터 외국인 투자가 유입되면 한국의 산업구조와 무역수지가 개선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대부분 일치하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자본 축적, 시장규모의 확대 그리고 경쟁을 통한 생산성 향상의 효과가 나타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경제성장 및 무역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경제성장이 3.2% 그리고 대일 무역수지가 50-60억 달러 정도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sup>3)</sup>

한일FTA 체결에 따른 일본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가 미치는 영향을 산업 연구의 결과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대일수출이 크게 증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으로는 정밀기기(86.5%), 섬유가죽의복(49.8%), 전기기기(21.5%) 등이다. 수입의 경우에는 수송장비(71.1%), 일반기계(55.4%), 정밀기계(46.1%), 목재·제지(45.7%), 화학(40.5%) 등에서의 증가효과가 크다. 이어서 전기·전자기기(34.6%), 금속제품(27.7%), 비금속광물(24.9%), 섬유(23.5%) 등도 비교적 수입 증대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16> 한일 FTA(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의 대일수출입 효과

단위 : %

	수 출	수 입
농림수산품	9.7	184.2
광산품	5.0	6.1
음식료품	18.9	170.3
출판인쇄제품	0	5.5
섬유가죽의복	49.8	23.5
나무종이제품	9.4	45.7
석유석탄제품	0.6	0.4
화학제품	11.3	40.5
비금속광물제품	4.1	24.9
제1차금속제품	1.0	1.7
금속제품	0.6	27.7
일반기계	2.4	55.4
전기전자기기	21.5	34.6
정밀기기	86.5	46.1
수송장비	0.7	71.1
가구·기타	5.1	18.9

자료 : 유관영 외(1999), 「한·일 FTA와 신산업정책 연구」, KIET.

3 鄭仁教(2001)

## (2) 제조업 공동화에 미치는 영향

한일FTA가 시행될 경우 산업별로 효과가 상이하겠지만 무역수지를 악화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의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구조조정 과정에 있는 한국 산업에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한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시장 확대, 규모의 경제, 기술협력 등으로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개선시킴으로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양 효과 모두 제조업의 고용 유지 능력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쟁력이 강화되는 경우에도 고부가가치화로 산업구조조정이 진행됨으로써 제조업의 고용 유지 능력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을 비롯한 제3국과의 경쟁력이 개선됨으로써 수출확대에 따른 생산 증대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

일본으로부터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활발하게 유치되는 경우에는 해외직접투자를 대신함으로써 고용창출에 기여하여 공동화를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을 것이다.

## 5. 평가 및 시사점

### (1) 요약 및 평가

국내총생산 측면에서 한국 경제내 제조업의 역할이 축소되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 오히려 외환 위기 이후 제조업은 높은 생산성 향상 등으로 한국 경제에의 기여가 과거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서도 현재까지는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몇 가지 측면에서는 제조업의 역할 감소 및 구조조정에 대한 징후를 찾을 수가 있었다.

첫째, 일인당 국민소득이 외환위기 이전 수준에 달함으로써 제조업의 명목 GDP 비중이 감소할 개연성이 크다.

둘째, 해외직접투자 중 저임금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의 비중이 증가함으로써 고용 축소의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혹은 경쟁에서 낙오되는 분야가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중소기업의 대중투자가 금액 및 건수 면에서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은 세계화 및 열악한 국내기업 환경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넷째, 투자 및 무역 양 측면에서 대 중국 의존도가 빠른 속도로 심화되고 있다.

2003년 기준으로 수출과 해외투자 모두 중국이 최대 대상국으로 부상한 것이다. 이제까지의 성취는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지만, 의존 속도가 빠르다는 측면에서 불안정성이 높아진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경쟁력의 개선 및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제조업 비중의 저하는 불가피하지만 최근의 투자 부진은 성장잠재력의 약화와 제조업 비중의 급락을 야기할 우려도 있다. 게다가, 외국인 투자 및 해외투자가 부진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투자의 악순환이 야기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 (2) 정책 시사점

이렇게 본다면, 현재 한국경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기업 및 투자 환경 개선이라고 할 수 있겠다.

첫째, 기업가 정신의 회복이 시급하다. 금리인하 등 다양한 정책 수단에도 불구하고 투자 회복을 기대하기 힘든 것은 기업하려는 의욕이 침체된 결과로 판단할 수 있다. 기업가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 제반 기업환경과 관련하여 선언적 및 실질적인 조치 등을 강구하여 정책 신뢰도를 제고하여야 한다. 무분규 사업장 표창제, 무분규 선언지역의 외국인투자 유치 우대제 등을 통하여 지역 및 기업간 경쟁을 유발하고 노사관계를 개선하여나가는 안을 생각할 수 있다. 세제, 금융 등 모든 정책을 경쟁국에 비해 최소한 열악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유의 목적으로 규제 등이 필요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단기적인 해외이전의 가속화를 방지하기 위해 주5일제 실시 등과 같은 생산비용 급등에 대응하여 세제감면 및 물류비용 인하 등의 contingent plan을 수립하여야 한다.

둘째, 급격한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대응책도 시급하다. 지역의 신산업 창출 등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의 확대와 사양산업의 소프트랜딩(soft-landing)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규제개혁 장기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제반 비용을 절감하여야한다. 유통 및 물류 등과 관련한 각종규제를 과악하여 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 및 비용편익을 분석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제조업에 비해 과도한 규제, 미흡한 세제 및 재정지원 등 차별적 제도를 개선한다. 제조업의 활력이 상실될 경우 전체 경제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소득이 저하되며, 이는 다시 서비스 수요의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국가경쟁력의 평가, 점검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정기적인 메카니즘이 시급하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성장 동력, 과학 기술 중심사회, 동북아 허브 등의 국제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러

한 시책이 투입주도형이 아니라 혁신주도형이어서 효율성과 종합성이 중시된다는 점에서 국가 전반의 경쟁력과 효과성을 점검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즉, 제반 시책이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및 점검하여 개선하는 메카니즘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이다. 해외직접투자가 제조업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키고 있지는 않지만, 대중국 무역 및 투자 의존도가 빠른 속도로 심화되고 있어 대중교류와 관련한 착란 개연성이 커지고 있는 등 한국 경제가 기로에 서있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러하다. 더욱이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해외법인 및 해외직접투자를 고려한다면, 세계화를 지원하는 조직의 강화도 고려하여야 한다.

### (3) 기업의 전략적 대응

탈공업화의 과정에 있는 한국 경제의 제반 환경을 고려하면, 기업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전력의 추구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기술혁신 및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 경제에서 특히 고용에서 제조업 비중의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것은 기업으로서는 생산인력의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단순 인력에 의존하는 생산은 시장에서 탈퇴가 불가피하다. 즉, 고부가가치화, 해외생산, 시장 퇴출의 3가지 선택수단이 가능할 것이다. 저부가가치제품은 해외에서 생산하여야 하며, 또한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기술 개발 혹은 기술습득 그리고 외국인 직접투자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중국과의 빠른 교역 증가는 국내시장에서 구조조정 압력을 높일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술 개발이나 고부가가치화 혹은 글로벌네트워크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하지 못하는 기업이 도태할 가능성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둘째,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기업 스스로의 전략이 필요하다. 규제개혁 등으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는 있지만, 추진 성과 및 과정이 느려 기업들이 체감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면에서 OECD가 한국에 권고한 규제영향분석의 공개 등을 요구하는 것도 하나일 수가 있다. 혹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규제의 비용 및 편익을 시산하여 공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대중국 의존도의 심화에 따른 국내 경제의 불안정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중국 시장이 투자 및 수출 양 측면에서 기회로 작용하여 왔지만, 대중 의존도의 심화는 중국 경제의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커짐을 의미한다. 이런한 점에서 중국 경제의 동향 파악 등을 통하여 사전 대응하는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크다. 과거 미국 경제의 변화가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친 이상으로 중국 경제의 부침이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중국에 진출하여 있는 한국기업의 현지법인의 수가 일만 개사에 육박하고 있어 중국 경제의 부침이 바로 모기업의 경영활동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을 보이기 때문이다.

## 【 참고문헌 】

- 수출입은행(2002),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현지법인 경영현황 분석」.
- 柳寬榮 외(1999), 「한·일 FTA와 신산업정책 연구」, 산업연구원
- 鄭仁教(2001),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KIEP
- 河炳基(2002), "Deindustrialization in the Korean Economy : Does Outward Investment Matter?"
- 河炳基(2001), 「국제직접투자와 산업구조조정」, 산업연구원
- Dunning, J. H.(1993),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he Global Economy*, Addison-Wesley Publishing Co.
- Rowthorn, R. and Ramaswamy, R., (1999)"Growth, trade and deindustrialization", IMF Staff Papers.

# 製造業 공동화 현황 및 평가

2004. 4

河炳基 선임연구위원



## 목 차

- I. 서론
- II. 제조업의 역할
- III. 공동화 평가
- IV. 평가 및 시사점

### I. 서론

- 기업의 해외이전으로 제조업 공동화 우려 큼.
- 한국 경제가 제조업의 성장과 수출입에 크게 의존해 왔기 때문에 “공동화”라는 단어 그 자체가 위기감 야기
- 서비스업의 경쟁력이 국제적 수준에 비추어 미약한 상황에서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
- 공동화냐 탈공업화냐?: 현실 인식 및 정책 대응에의 차이

### I. 서론

#### 논리적 개념 비교

기준	탈공업화	공동화
시각	현상(결과) 설명 가치증립적 선진국화 현상	명제 부정적 가치부여 언론적인 개념
원인	수요, 생산성 격차, 무역 및 해외투자	해외직접투자
논리적 인 대응	경쟁력 제고 정책 구조조정 정책	기업 해외투자 방지 혹은 억제책
비고	공동화와 혼용	중소기업 해외투자 억제

#### 제조업의 성장동력 여부에 초점

## I.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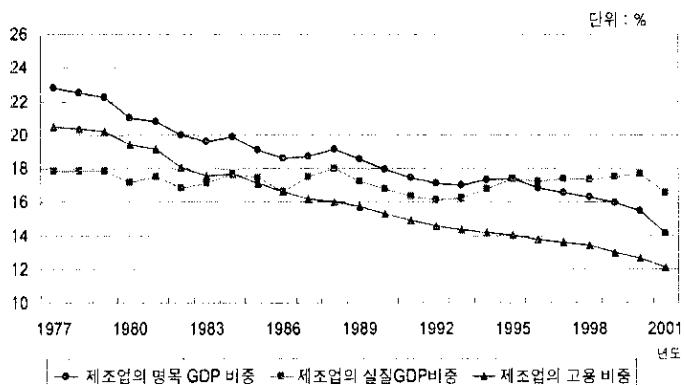
### 탈공업화(제조업 비중 저하)의 요인

- 국민 소득의 증가 : 서비스 수요 증대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 격차 : 명목과 실질 비중, 고용창출능력
- 대외요인(무역 및 투자) : 무역수지, 수직적인 분업, 해외직접투자
- 제조업의 분화: 지원 서비스업의 확대

KIET 産業研究院 5

## I.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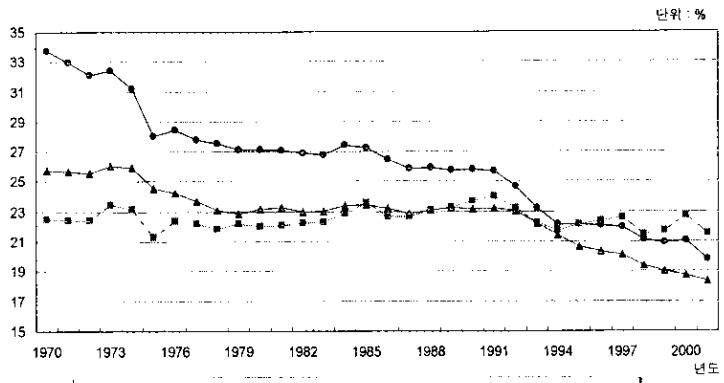
### 미국의 탈공업화 관련 지수 추이



KIET 産業研究院 6

### I.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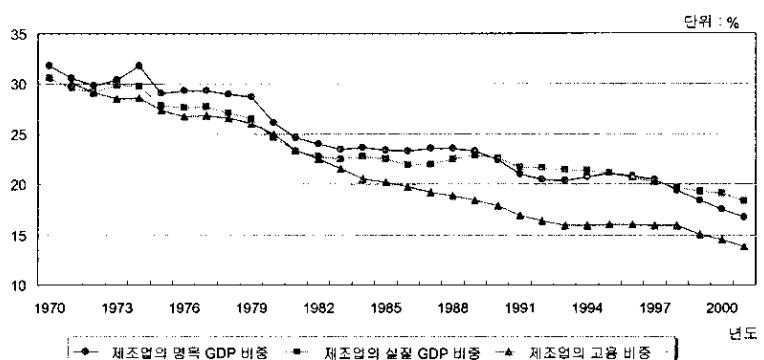
#### 일본의 탈공업화 관련 지수 추이



KIAT 産業研究院 7

### I. 서론

#### 영국의 탈공업화 관련 지수 추이



KIAT 産業研究院 8

## I. 서론

### 지원 서비스업의 비중 변화

단위 : %

	제조업 비중			지원 서비스업		
	1980	2000	차이	1980	2000	차이
미국	21.1	15.5	-5.6	4.7	9.9	5.2
일본	27.2	21.1	-6.1	3.2	7.5	4.3
프랑스	25.8	18.0	-7.8	9.7	13.4	3.7
한국	28.6	31.3	2.7	1.5	3.8	2.3

KIST 研究院 9

## II. 한국 제조업의 역할

### 고용은 탈공업화, 생산은 아직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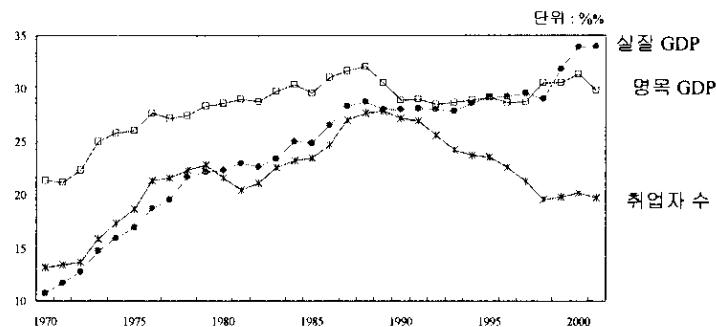
년도	제조업 비중			경제 성장을	총고정자본 형성증가율
	취업자 수	명목 GDP	실질 GDP		
1985	23.4	29.5	24.8	6.5	4.3
1990	27.2	28.9	28.0	9.0	25.9
1995	23.5	29.2	29.2	8.9	11.9
1997	21.2	28.7	29.5	5.0	-2.2
1998	19.5	30.5	29.0	-6.7	-21.2
1999	19.8	30.6	31.8	10.9	3.7
2000	20.2	31.3	33.8	9.3	11.4
2001	19.7	30.3	33.4	3.1	-1.8
2002	19.1	28.8	33.4	5.3	4.8

고용비중은 1989년 27.1%, 명목 GDP 비중은 1988년 32.1%로 최고  
2000년 EU 평균 20.6%, 일본 20.5% 보다 낮아

KIST 研究院 10

II. 한국 제조업의 역할

제조업의 비중 추이



실질 GDP 비중은 계속 증가, 앞으로는 ?

KIST 藥業研究院 11

II. 한국 제조업의 역할

성장 기여도 : 제조업이 성장을 주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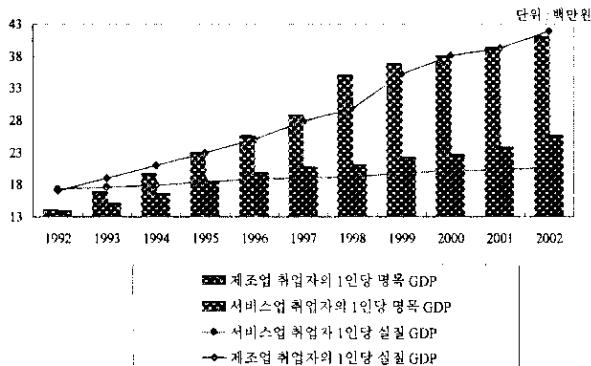
산업 / 연도	1981 - 90	1991 - 97	1997 - 2002
제조업	34.0	31.9	49.1
서비스업	61.9	65.0	51.6
1차 산업	4.1	3.1	-0.7
합계	100.0	100.0	100.0

제조업이 외환 위기 탈출에 주축

KIST 藥業研究院 12

## II. 한국 제조업의 역할

### 제조업의 일인당 생산성 커



1992년 제조업 1,420만원, 30만원 차  
2002년 4,110만원, 1,550만원 차

KIST 藥業研究院 13

## II. 한국 제조업의 역할

### 제조업 비중(명목생산 및 고용) 저하 전망

- IT산업을 대체할 신산업의 조기 출현 기대난
- 제조업의 명목 GDP 비중이 1988년 최고 32.1%에서 외환위기까지 계속 감소
-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과 고용 비중간에 편차
- 국내투자의 대 GDP 비중 저하는 제조업에 대한 수요 감소
- 선진국의 사례(실질 일인당 GDP 9000달러 기점 : Rowthorn교수)

KIST 藥業研究院 14

## II. 한국 제조업의 역할

### 소득수준별 선진국의 산업구조

국가	년도	산업구조 (%)				1인당 GDP (달러)
		농림수산 및 광업	제조업	사회간접 자본	서비스업	
한국	2001	4.8	30.0	11.1	54.1	8,900
	1980	4.1	28.2	11.6	56.0	9,069
일본	1987	2.9	26.9	11.5	58.6	19,806
	2000	1.4	20.8	9.7	68.1	37,542
미국	1977	5.4	22.8	7.3	64.6	8,962
	1988	3.6	19.2	7.5	69.6	19,912
영국	2001	2.8	14.1	7.0	76.1	35,401
	1982	10.0	23.7	8.9	57.5	8,631
독일	1996	4.5	20.5	7.2	67.8	19,621
	2000	4.0	18.6	7.1	70.3	24,060
	1978	3.4	31.9	8.9	55.8	9,177
	1990	2.1	29.3	7.8	60.8	20,665
	2001	1.5	22.2	6.6	69.7	22,500

KIAT 産業研究院 15

## III. 공동화 평가 : 국내 투자

### 국내 투자 관련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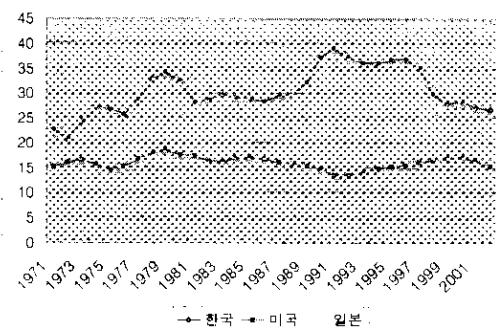
	1971 - 1980	1981 - 1990	1991 - 1997	1998 - 2000	2001 - 2003
고정자본소모/총고정 자본형성	25.5	32.2	29.2	43.6	42.7
제조업 생산능력 증가율	15.6	8.2	5.7	7.9	3.2

총고정자본 형성의 대 GDP 비중: 90년대 30% 대에서 20%로 저하

KIAT 産業研究院 16

III. 공동화 평가: 국내 투자

총 고정자본형성/GDP 비중(%) 추이



KIN 研究院 17

III. 공동화 평가: 투자 환경

기업경영 환경의 국가별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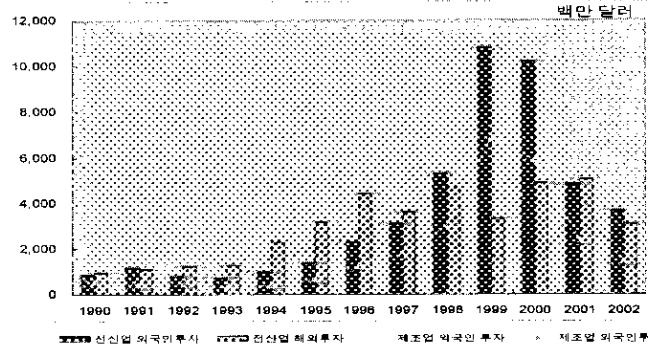
	기업환경 순위	노동쟁의		노사관계 순위	노동시장의 유연성 순위
		쟁의발생건수	노동순실일수		
한국	18	226.4	113.6	30	25
일본	13	99.7	1.4	1	14
미국	1	30.0	70.4	8	2
중국	7	-	-	20	13

한국은 총 30개국가 중 노사관계는 최하위

KIN 研究院 18

### III. 공동화 평가: 국제투자 동향

#### 국제직접투자의 최근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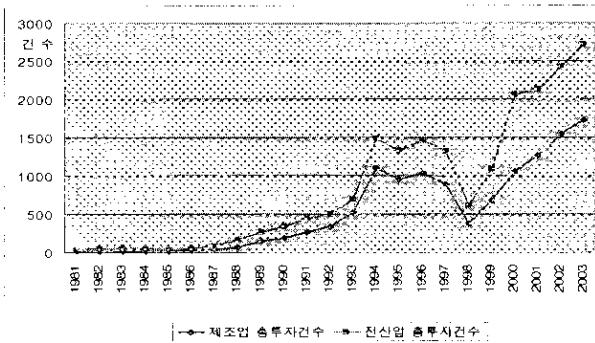


해외 및 외국인 직접투자도 부진  
제조업 투자 수지 적자가 공동화론의 근거로 지적

한국 研究院 19

### III. 공동화 평가: 해외직접투자 특징(건수)

#### 해외직접투자 건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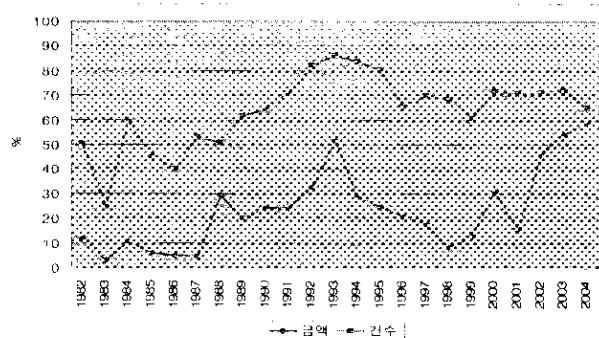


2003년 말 현재 전산업은 19,761건, 제조업은 12,295건  
1990년까지 누적 건수는 1,513건에 지나지 않아

한국 研究院 20

III. 공동화 평가: 해외투자 동향 특징(중소기업)

중소기업 제조업 해외투자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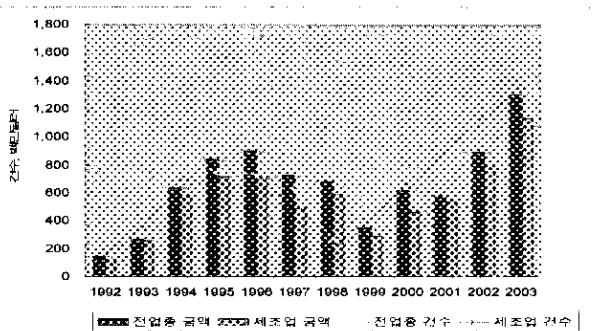


2003년 중 12억 4천만 달러(전체의 54.2%), 967건(전체의 72.1%)  
누계 비중은 금액은 24.7%, 건수는 72.2%  
금액 비중 크게 증가

KINT 産業研究院 21

III. 공동화 평가: 해외투자 동향 특징(국가별)

중국, 제1의 투자국으로 부상



2003년 말 현재 9,086 현지법인(전체의 46%)  
7,822 제조업 현지법인(전체의 63.6%)

KINT 産業研究院 22

### III. 공동화 평가: 세계화

#### 우리 경제의 세계화는 상대적으로 낮아

→ Stock 의 대GDP 비율(2000년 기준)

단위 : %

	선진국	개도국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아일랜드
			1995	2000	2002						
외국인투자	17.1	30.9	1.9	8.0	9.2	12.4	1.1	30.5	65.9	36.1	68.2
해외투자	22.1	11.9	2.1	5.8	6.5	13.2	5.8	63.2	83.8	53.8	19.4

네덜란드, 스웨덴 등 대외의존경제에 비교시 상당히 저조한 수준임.

KIST 産業研究院 23

### III. 공동화 평가

#### 저임금 목적 비중 커져

→ 산업구조조정 암시

단위 : %

	전체				중국			
	수출총액		저임금		수출총액		저임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92	50.2	30.8	30.7	15.3	43.7	48.5	45.7	46.2
1993	50.4	66.2	36.6	23.1	44.0	54.9	46.6	42.0
1994	50.6	66.0	37.3	13.6	44.6	56.9	45.5	34.9
1995	53.4	75.0	32.9	12.9	45.0	59.6	45.3	27.6
1996	47.0	51.2	37.9	9.8	39.0	44.8	53.5	26.6
1997	48.7	52.3	33.6	12.6	37.6	49.6	52.8	32.6
1998	59.0	81.2	26.7	9.1	47.1	66.4	41.2	24.5
1999	51.2	54.5	27.3	12.0	41.2	55.8	46.5	31.9
2000	53.7	44.1	24.0	13.5	49.4	51.3	42.6	26.5
2001	55.9	80.1	29.2	8.2	46.6	52.4	44.1	39.7
2002	51.6	58.1	34.9	26.3	45.0	56.6	45.2	32.6
2003	47.9	28.3	38.6	18.1	42.5	48.8	47.3	40.0
합계	46.2	54.3	28.1	9.0	43.9	53.3	45.6	32.6

KIST 産業研究院 24

III. 공동화 평가: 기업내 무역

**무역수지 개선 효과**

→ 2001년 현지법인과의 수출입

수출	수입	무역수지	비고
27.63 십억달러 (1.55달러)	7.85 십억달러 (0.44달러)	19.78 십억달러 (1.11달러)	1000만 달러이상 투자된 311개 해외현지법인(178.4억 투자잔액)



産業研究院 25

III. 공동화 평가: 기업내 무역

**효과**

→ 2002년 ASEAN과 중국의 현지법인과의 수출입으로 인한 무역흑자 추정

현지법인의 무역흑자	현지법인의 무역흑자 추정치 (A)	총무역흑자(B)	A/B
1.81 십억달러	3.57 십억달러	7.83 십억달러	45.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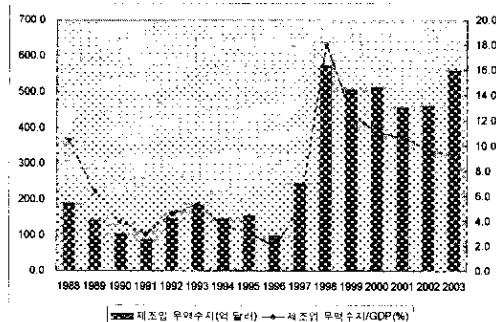
기업내 무역의 무역수지 효과 당분간 지속 예상



産業研究院 26

### III. 공동화 평가: 무역

#### 제조업 무역수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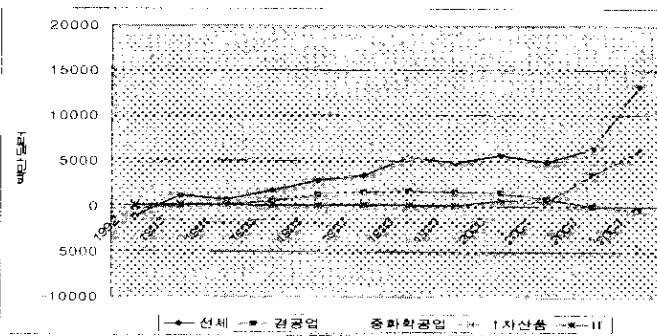


제조업 무역수지 최근에 증가추세: 2003년 558억 달러(GDP의 9.2%)

KIT 研究院 27

### III. 공동화 평가: 대중국 무역

#### 대중국 무역수지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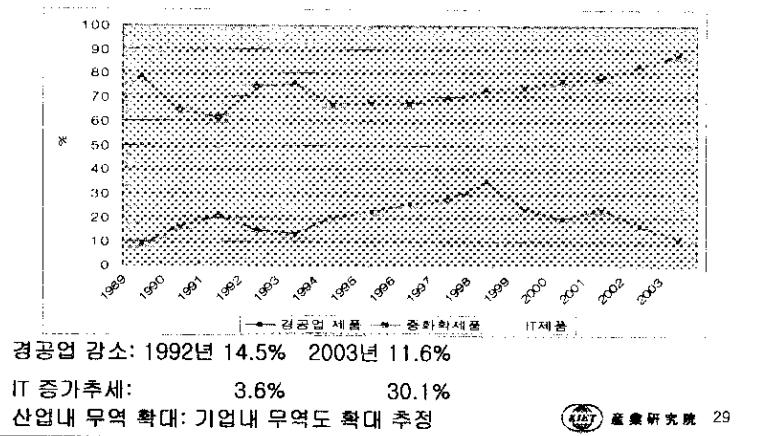


중국 2003년 제1의 수출국으로 부상: 132억 달러의 무역흑자  
IT 부문의 흑자(61억 달러) 확대, 경공업 및 1차 산품 적자 확대

KIT 研究院 28

### III. 공동화 평가: 대중국 무역

#### 대중국 수출 구조 추이



### IV. 한일 FTA

#### 한일 FTA의 효과

- 중화학 공업의 피해 예상
- 외국인 투자 및 기술 이전의 긍정적인 효과 기대
- 자본축적, 시장 규모 확대, 경쟁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동태적 효과)

동태적인 효과 창출을 위해 기술 및 투자에서 상호 협력 체제의 구축 필요

## V. 평가 및 시사점

### 평 가

- 제조업의 역할 축소 증거 없음
- 해외직접투자의 이익 유지
- 제조업의 비중(고용 및 생산액) 감소 예상
- 부역 및 투자의 대중 의존도 심화: 빠른 속도로 안정성 위협
- 공동화가 아니라 모든 투자의 부진이 문제: 중소기업 투자 및 투자건수 증가 우려

 KETI 産業研究院 31

## V. 평가 및 시사점

### 정책 시사점

- 기업환경의 개선
  - 기업가 정신 회복
  - 규제 개혁
  - 경쟁국과 비교해 열악하지 않은 세제 및 재정 정책 수립
- 사양산업의 soft-landing 추진 등을 통한 구조조정 정책 혹은 고용 확대를 위한 성장정책 추구 필요
- 국가경쟁력 제고 메커니즘 강구

 KETI 産業研究院 32

V. 평가 및 시사점

## 기업 전략

- 경쟁력 제고 노력 배가: 구조조정에 대비
- 중국 동향 파악 및 사전 대비 필요: 경제 통합 심화

### 3. 제 1 분과회 질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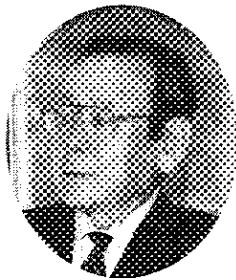
- 일본처럼 한국에도 해외에 진출했던 기업이 국내회귀와 같은 형태의 설비투자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 한국과 같이 해외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해외투자의 필요성으로 인해 공장의 국내회귀현상은 일본과는 다른 양상임
- 선진국의 경우 산업공동화를 서비스산업, 금융산업 육성, IT정보기술 등을 통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로 극복한 사례가 있는데, 일본의 경험에 비추어 한국의 경우 어떠한 산업공동화 대책이 필요한지, 그리고 한일FTA 체결을 향한 대응방안 등에 대해
  - 온라인의 발상과 행동이 중요. 이론적인 논의가 아니라 역시 페이스·투·페이스로 기업간 일상적인 접촉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
- 한국의 경우 국가적인 기술개발전략 혹은 국가면에서 본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재투자와 관련하여 대학과 대학원의 연구기술자의 육성에 대해
  -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특단의 정책적 대응은 없으나, 경쟁력 강화(경제의 파이를 키우기 위한 정책, 부문별 인재개발, 기술개발, 과학기술중심의 세계 구축)를 위해 힘쓰고 있음.
- 한일간 지방레벨의 협력의 형태(기술협력, 시장으로서의 협력)에 대해
  - 특색이 있는 지역과 같은 성격 혹은 상호보완 가능한 특색을 가진 지역간의 Local to Local 교류 확대가 중요
- 일본은 기업차원의 전략상 한국을 경쟁상대로 부메랑 현상 등을 우려하여 필리핀 등 다른 나라와의 협력을 추진중이나, 한일FTA나 한일 정부간 협력을 생각해 볼때 중소기업간의 만남의 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글로벌화 속에서 각국의 강점을 살리는 것이 글로벌화의 포인트임
  - 제록스 본사에서 2년전 그룹의 생산거점을 코스트절감을 위해 중국으로의 이전 결정이 내려져 인천공장이 폐쇄될 위기가 있었으나, 한국의 강점인 개발과 생산의 일체화에 대해 설득, 현재 모듈 즉 주변기기를 한국에서 생산하여 중국으로 가져가고, 일본에서 생산한 심장부(엔진)를 중국에 가져가는 스킴으로 움직이고 있음. 향후 한중일 3국간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 나가고자 함

- 서울저팬클럽의 의견으로서 한국은 보다 더 이공학부와 R&D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품질보증을 위해 일본에서 인력을 파견시 비자 문제가 큰일임. 그리고 부품 수출입시 관세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하루빨리 한일FTA의 체결을 희망함
- 한일FTA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서는 우선 할 수 있는 산업을 학업해 하나의 성공담을 만들어 내고 이를 통해 상호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이의 일환으로 수출입 수속의 간소화를 적극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함
- 산업공동화는 기업의 입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적극적인 해외 투자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필연성, 글로벌 대응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전개되는 현상임.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심화시키고 Local to Local 교류를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으며, 한편 중국이라는 마켓이 링크되어 있어 한일 양국은 커다란 하나님의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함
- 글로벌한 입장, 매크로한 입장에서 일본과 한국의 국익이라는 점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테마를 정해 이 테마에 따라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기를 희망함

## X. 第 2 分 科 會

### 1. 日本側 백그라운드 페이퍼

『韓國 中小企業과의 交流 體驗』



上田 勝弘 (UEDA Katsuhiro)

(社)日本金型工業會 會長 / 大垣精工(株) 社長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오가끼정공의 우에다입니다. 오늘은 이른 아침부터 이처럼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제가 발표해드릴 테마는 제가 스스로 경험한 한국 중소기업과의 협작 또는 친선관계, 25년 전부터 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저는 25년 전에 한국에 처음으로 인터몰드라는 금형전시회가 개최되었는데 81년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올 21일부터 오사카에서 일본측의 가나가따몰드 우리의 주최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옆에 계시는 김학권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님도 참석하시고 여기 계시는 초대 회장님도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국립서울산업대학 등 기타 관련 대학의 많은 교수님들, 그리고 대표자분들이 40여명 참석하신 가운데 교류와 공정계획, 가나가따금형 포럼을 개최해 왔습니다. 그 동안 김학권 회장님하고는 매일 20일 밤부터 어제 밤까지 교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이라는 것은 바로 힘이 된다는 말이 있듯이 술을 매일 마실 수 있다는 것도 힘이 있어야 합니다. 이만큼 매우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 주셨기 때문에 한일교류를 더더욱 심화시키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저는 25년 전에 한국의 인터몰드라는 금형전시회에 놀러 가기 위해서 가봤습니다. 호기심이 제가 많습니다. 한국 친구는 한명도 없었습니다만, 저희 직원 세명을 데리고 가봤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빌려서 형식만 갖춰놓고 시내관광을 했습니다. 그것이 한국과의 시작이었습니다. 첫해는 아무런 거래도 없었지만 이듬해부터는 견적을 의뢰해 오는 등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LG의 금형공장이라든지 삼성 등에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거래가 시작되었고 현재 25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한국 파트너와 기술제휴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동안 저뿐만 아니라 저의 친한 친구와 함께 합작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회사가 대구에 있습니다. 그 회사는 계속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지금부터 17년 전에 만들었는데 현재 코스닥에 상장하고 있습니다. 업적도 상당히 늘어났고 중자를 하고 그 자금으로 중국의 청도에 설비투자를 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합작회사를 청도에 만들었습니다. 그 청도에 만든 공장도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한국의 저의 파트너가 경영을 맡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금과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뢰관계가 25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발표드릴 내용에서 중소기업의 교류와 대기업의 교류의 기본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중소기업은 한국분들도 그렇습니다만, 교류를 하게 되면 평생 계속되는 것입니다. 사귀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사귄다는 기본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의 경조사에 참석하기 위해 왕래하게 되면 친척의 얼굴도 익히게 됩니다. 친척 얼굴을 알게되면 그 분들과도 친해집니다. 깊은 교류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농밀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한다, 협력관계를 맺는다는 것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매우 깊은 인간관계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입각한다면 무서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가족을 포함한 교류를 전개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국립서울산업대학의 유교수님도 계십니다만, 저의 파트너로부터 대학에 학생을 받아들여 달라는 요청에 따라 금형설계학과에서 공부하게 되는 교류도 시작되었습니다. 17년째가 되었습니다. 여름방학에 학생이 수십명 와서 아파트에 묵으면서 공장 견학도 하는 등 금형학과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진도 포함한 교류가 17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여러분과는 대기업도 포함해서 많은 연수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연수망을 포함하면 500명 이상이 우리 공장을 찾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이 현재 졸업하고 금형 관련 회사에 취직하거나 대기업,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전국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의 기술연수생도 수백명이 한국 전역에 분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되면 저도 한국을 가서 우연히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연수를 하신 분들은 20대에 오가끼정공에서 연수를 했다는 것이 평생동안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반대로 제가 한국에 갈 경우 한국은 정보사회이기 때문에 그 정보가 어딘가로부터 흘러 나갑니다. 그러면 왜 우리 회사를 찾아오지 않았는가라는 공격까지 받게 됩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한국에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립서울산업대학과의 교류도 17년째가 되었습니다. 교수진과도 가족처럼 사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일 우호 비즈니스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이론이라든지 또는 큰 힘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믿을 수 있는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 하나 말한 것을 실천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했듯이 계속은 힘이다, 그리고 자그마하지만 긴 교류를 통해서 우호관계, 신뢰관계가 구축된다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주 소규모의 교류가 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저는 오가끼시 15만명의 도시에 살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라이온스클럽이나 로터리클럽 등에는 전혀 에너지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입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대신 한국 연수생이 오면 로터리클럽이나 라이온스클럽에서 민박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형식적인 우호관계도 있겠습니다만, 그 외의 심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저는 에너지를 쏟아 붓고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데 있어서 많은 친구를, 기업의 동료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기업 사장님과 함께 소개도 드리고 명함교환도 하면서 저녁식사도 하고 관광을 한다든지 해서 교류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아무도 한국에 갔다 와서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한 사람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친한파가 됩니다. 다음엔 한국분들이 와주기를 기다리는 관계가 오가끼시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모가 조금씩 커져가는 것이 한일 양국의 교류에 원동력이 된다고 제 자신이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메노모리 호우슈(雨森 芳州)라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낯선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14년전 즈음에 노태우 전대통령이 일본에 오셨을 때 궁중만찬회에서 이 아메노모리 호우슈의 이름을 내거셨습니다. 일본측으로서는 아메노모리 호우슈가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인지 화제가 되었습니다. 실은 아메노모리 호우슈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외교관인데 고향에서 40분 거리에 있는 시골마을에서 의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학생들과 연수생은 우리 회사와 가깝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념관을 방문시키고 있습니다. 기념관에 가면 한일 교류의 역사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메노모리 호우슈가 태어난 때의 자료가 많이 남아 있는데 조선통신사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대마도에서 일본과 조선의 무역중개역할을 하라고 해서 가서 활약을 하고 부산의 왜관에서 한글을 공부하고 나가사키에서 중국어도 공부했습니다. 에도시대의 지방의 외교관으로서 조선통신사가 서울을 출발해서 세토내해를 통해서 에도, 도쿄까지 몇천 킬로미터의 길을 가는데 있어서 통역을 했습니다. 중국어, 한글을 공부한 사람은 그 당시에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일사전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과 조선의 정신의 교류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싸우지 않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정신으로 이웃나라와 교류를 해야 한다는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공부하지 않으면 진정한 뜻의 상대국의 이해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이웃나라말도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수생이 오면 반드시 그 기념관에 데려갑니다. 일본역사에 있어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등의 인물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메노모리 호우슈와 같이 이웃나라와 우호관계를 맺었던 인사가 있었다 하는 것도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저는 학생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일본과 그 당시의 조선, 현재의 일본과 한국의 교류는 이러한 기본적인 정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의 일본과 한국의 무역문제, 또는 일본에 있어서의 대기업, 또는 회사의 여러 가지 불상사들이 지금 다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실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권리와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입각해서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의라는 것은 배신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속이지도 않고 속지도 않고 숨겨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률의 기본 정신입니다. 이것이 이익중심주의가 된 결과 이러한 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것이 과거의 아메노모리 호우슈가 대마도에서 조선과 무역을 했을 때와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쌀에다 물을 많이 넣어 양을 늘려 거래를 했다든지 은의 함량을 적게 해서 부정교류를 했다든지 하는 논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기본적인 신의 성실의 원칙을 잊어버리면 그러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은 표면적인 교류가 아니라 아주 깊이 친척까지 포함할 수 있을 정도의 인간관계로부터 시작되어서 기술교류, 자본교류를 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회사들과 재미있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의, 성실한 원칙, 배신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의 체험담을 중심으로 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 韓國側 백그라운드 페이퍼

### 「韓日FTA와 中小企業 活性化 對策」



金學權

韓國金型工業協同組合 理事長 / 宰模SOLUTECH(株) 社長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 받은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金學權입니다. 존경하는 양국 경제인이 다수 참석하신 가운데 '韓·日 FTA와 中小企業 活性化 對策'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방금 우에다 회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아울러서 2005년도 3월의 아이치 엑스포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I. 서론

최근 일본은 주변국이 ASEAN과의 FTA 협정을 선언함으로써 동아시아지역의 경제적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것을 견제하고 역내 자유 비지니스권을 구축하기 위해 멕시코, ASEAN 제국 등 자국 산업에 피해가 적은 교역파트너와의 FTA를 적극 추진하는 것을 볼 때 한국과의 FTA 체결도 희망하고 있는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한국 역시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개혁과 개방정책이 대외신인도 제고에 중요하고, 세계경제의 중추적 역할수행을 위해서는 개혁과 개방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전세계적으로 확대·심화되는 자유무역협정에 적극 대응할 필요도 커졌다고 봅니다.

따라서 한일 양국간 FTA는 다른 지역과의 FTA에 비해 정치적, 역사적 장애요인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및 일본 기업간 경쟁관계의 해소와 전략적 제휴의 확대 및 주변국 浮上에 대한 공동대비와 동북아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준비, 국제무대에서의 위상강화, 동북아지역의 정치적 안정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양국이 FTA를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일 FTA 체결을 전제로 그간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FTA 체결의 직접적이며, 가장 많은 이해당사자가 속한 중소기업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한일 FTA 체결을 전제로 하여 양국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양국간 대책이나 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II. 한·일간 중소기업의 무역·투자와 경쟁력 비교

### 1. 한국 중소기업의 대일무역

2002년도 기준으로 한국 중소기업들의 **對 세계 총수출액(683억달러)**에서 **對 日 수출액(73억 달러)**이 차지하는 비중은 10.7%인데 그 중 중소기업에 의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對 세계 평균(42%)**보다 다소 높은 48.3%였습니다.

한국 중소기업의 대일 수출품에서 기계·전기·전자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38.7%, 화학/플라스틱/고무류가 12%, 섬유/신발이 11.7% 정도를, 동식물성 생산품이 9%를 차지하는 바, 중소기업의 대일 주요 수출품은 전자·전기제품, 섬유, 기계, 화학제품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 양국 중소기업의 상대국 투자

한국 중소기업의 대일 투자건수는 364건으로 전체투자건수(588건)의 62%에 이르나 금액기준으로는 약 1/5(1억 3,570만 달러, 대일 총투자금액(6억달러)의 21.6%)에 불과하며, 투자 규모도 건당 37만 달러로 한국중소기업 전체의 건당 해외 평균 투자금액(73만 8,700달러)의 절반 수준입니다.

일본 중소기업의 대한 투자의 경우 2001년 기준 전체투자업체 수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86.6%에 달하고 있으며, 업종별 투자 순위는 기계(22%), 판매·유통(17%), 서비스 및 화학(각각 13%), 전기·전자(12%) 등의 순입니다.

### 3. 한·일간 중소기업의 경쟁력 비교

한국 중소기업과 일본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력을 비교해 보면 한국 중소기업이 일본 중소기업보다 낮은 경쟁력을 보이며, 특히 생산성은 일본의 60.6%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기술경쟁력의 경우 한국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은 일본대비 체감 기술격차가 평균 1.7년 뒤지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일본에 뒤진다고 평가한 기업이 73.7%인 반면, 대등하다가 14.2%, 앞선다는 기업은 12.2%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능력은 양적으로는 한국이 우수하나 질적으로는 일본이 우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마케팅경쟁력의 경우 한국 중소기업은 자사의 브랜드능력을 주요 경쟁상대국 대비 64.1%, A/S는 82.6%, 디자인능력은 80.3% 정도의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바, 전반적인 마케팅능력은 주요경쟁상대국 대비 약 7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생산요소부분별 경쟁력을 살펴보면 인건비의 경우 한국의 원가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지대로 본 입지 경쟁력의 경우에도 상업용지 최고지가수준을 비교해 본 결과 일본은 한국의 약 5.3배 수준으로 한국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에서 나타난 요소별 경쟁력을 분석해보면 한국중소기업은 일본중소기업에 비해 기술경쟁력, 연구개발능력, 마케팅경쟁력 등이 낮아 전반적인 경영성과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나, 노동·입지와 같은 생산요소가격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높아 향후 한·일 FTA 체결로 일본 중소기업이 對韓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한다면 자사의 생산비절감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 III. 한·일 FTA와 한국중소기업에의 영향 및 파급효과

#### 1. 주요산업별 영향

한·일 FTA에 따라 한국의 중소기업은 단기적으로는 제조업과 관련한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재편, 1차 2차 중소하청계열의 사업축소, 철수, 도산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하청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자동차나 전기전자 등 어셈블리 또는 세트메이커의 타격에 따라 2차적으로 하청단가, 또는 발주 감소 등의 영향이 예상됩니다.

섬유 등 독립기업으로 내수에 종사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수출기업간에는 FTA 영향의 명암이 엇갈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관세율이 높은 품목의 경우 타격이 클 것이며, 수출기업의 경우에는 일본의 관세율이 높은 품목에 대한 수출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2. 개별중소기업에의 영향

한·일 FTA 체결에 대한 한국 중소기업의 수요내용에 대한 설문에서는 한·일 FTA 체결시 일본기업과의 회망협력분야는 주로 수출(45.2%), 판매 등에서의 기업 간 제휴(43.9%), 공동기술개발(34%) 등의 순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일본의 비관세장벽 유형 및 통관절차상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지는 장벽유형에 대해 한국 중소기업은 복잡한 관세 및 무역행정 등과 같은 통관절차(39.8%), 유통절차와 제도상 문제점(37.9%), 관세할당·고관세(29.5%) 등의 순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상에서의 조사결과는 한·일 FTA 협상추진시 체결시기, 협력분야, 비관세장벽 등에 대한 중소기업의 수요내용을 반영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에게는 체결 후

유예기간을 마련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한·일 중소기업간의 제휴 및 공동기술개발에 대한 지원프로그램 협상추진, 일본 비관세장벽 중 가장 큰 걸림돌인 통관절차의 복잡성 해소,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 일본협력파트너정보의 제공 기능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 3. 관세철폐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일수출 영향

일본평균관세율에 연관시킨 중소기업의 품목별 **對日수출분포도**를 본 결과, 수출규모가 큰 품목은 무관세/낮은 관세 영역에 집중되어 있고, 관세가 높은 품목은 수출액이 작은 품목임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는 관세가 낮거나 무관세에 속하는 품목들은 일본상품의 높은 경쟁력 때문에, 관세가 높은 품목들은 우리나라의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이나 주변국과의 경쟁에 의한 생산 및 수출 감소 때문에 FTA에 따른 **對日수출증대효과**는 기대하는 만큼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일 FTA는 관세인하에 따른 대일 수출의 증대 효과보다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주변국의 위협에 대비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공동 기술개발, 기술도입 등의 측면이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 IV. 한·일 FTA와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

### 1. 한·일 정부간 협력방향

한·일 중소기업간 다양한 협력형태의 효과적인 협력수행을 위해서는 기업·시장에 일임하기보다 양국정부와 관련단체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이며 실효성 있는 협력정책이 요구됩니다. 한국측은 실효성 제고에 필요한 협력사항으로 노사관계 안정, 우수인력확보, 조세감면, 컨설팅 등을 통한 비즈니스 개발 지원을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측은 첨단기술의 **對韓이전**, 공동연구개발, 양국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확대, 한·일상호인증협정 체결등을 매우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국 모두 무엇보다도 기업간 신뢰관계 구축을 가장 중시하면서 특히 한·일 FTA에 대해서는 조기체결이 양국간 중소기업의 협력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일 중소기업협력에 관한 사항을 FTA 협정에 규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기구로 한·일 중소기업협력위원회(가칭)를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관은 중소기업 협력에 관한 FTA협정의 규정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사항을 검토, 토의를 실시하고, 한·일간 중소기업의 협력촉진에 관한 의견 및 정

보 교환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협력프로그램의 발굴이 요구되어지는데, 기술 인력의 연수 및 기술지도, 중소기계공업인력 연수사업 등에 의한 한국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프로그램 개발과, 중소기업의 한·일간 suppliers' chain 구축 등에 의한 한일 중소기업간 협력체제를 강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 2. 양국 중소기업의 대응전략

한일 FTA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양국 중소기업은 한·일 중소기업간 상호 사업을 보완할 수 있는 유망분야에 진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상호 기술노하우를 활용한 신제품개발, 상호 네트워크를 이용한 주변국에 대한 진출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협력성공사례를 벤치마킹 하도록 하는데, 이러한 양국기업간 협력의 성공 사례는 FTA에 따른 장기 동태적 효과로서 기업간 전략적 제휴가능성을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시사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FTA이후 양국 중소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려면 우선 양국이 각각 독자기술, 제품개발, 관련기술의 습득, 국제 비즈니스 률준수, 지적재산권 보호와 신뢰관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략적 제휴의 저해요인을 제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3. 중소기업의 시장접근 장애요인 제거

마지막으로 한국중소기업의 시장접근 장애요인을 제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유통구조상 요인, 거래관계상 요인, 거래관행상 요인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당사자간 상호거래 성행, 종합상사의 수입총대리점 역할, 경쟁품의 취급·판매 제한, 광고·선전, 경품제공 규제, 관련단체의 수입억제행동, 수입 총대리점제의 성행 등의 특수관행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유통장벽의 제거를 위해 1989년 미국과 일본이 발표한 '미일구조협의(SII)'와 같은 구조협의가 필요합니다. 향후 양국간 FTA체결시 이런 구조협의와 함께 경제제한적 행위를 보다 강하게 시정할 수 있는 '한일구조·경쟁정책협의'를 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입장에서 한일 FTA의 필요성과 이를 통하여 양국의 중소기업이 더욱 발전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한일간의 FTA는 21세기에 새롭게 도약하고자하는 양국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발전에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발표내용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내용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한일간의 FTA체결은 기본 방향에 있어서는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진행되어야 할 방향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FTA체결이 모두에게 이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2002년 현재 한국의 중소제조업 종사자는 1,857,740 명으로 경제활동인구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제조업이 미래를 위하여 투자할 여력을 판단할 수 있는 매출액 대비 투자액 비율은 0.89%에 불과합니다. 한국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은 일본대비 체감 기술격차는 평균 1.7년 뒤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현실에 비추어 한일 FTA를 통하여 완전한 무방비 상태에 노출된다면 한국 중소제조업의 몰락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배려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관세양허시 일정기간동안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하며 최소한의 보호조치와 중소제조업 기술력 향상을 위한 지원제도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초일류 수준의 일본 기술력과 경영혁신기법을 한국 중소제조업에 이식할 수 있는 양국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 양국의 기업간에 상호 win-win할 수 있는 산업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韓·日 FTA의 中小企業活性化 對策

### 金學權

韓國金型工業協同組合 理事長

#### ◆ 日本의 必要性

- 주변국의 ASEAN과의 FTA 협정 체결에 따른 동아시아 지역주의 시장 독점 경제
- 역내 자유 비즈니스권 구축 목표

#### ◆ 韓國의 必要性

- 외환위기 극복과 경쟁 개방 경제의 대외 전진도 제고에의 중요성 인식
- 전세계 FTA 확산 추세에의 대응

#### ◆ 韓·日 FTA 推進 背景

- 양국기업간 과당 경쟁 관계 해소, 전략적 협력 확대
- 주변국의 금부상에 대한 공동 대비
- 동북아/동아시아 경제 통합에의 대응
- 국제 무대에서의 위상 강화
- 동북아 지역 정치적 안정

#### ◆ 研究의 必要性과 目的

韓日 협상 회담 이후 했는 연구 및 논의에도 불구하고 경쟁 기업 분야에 대한 논의 미흡  
특히 FTA 체결 전제로 한국 경쟁 기업 활성화 대책 연구

**1. 韓國 中小企業의 對日貿易**

- ◆ 中小企業의 對日輸出動向
  - ※ 중소기업의 대체제 총수출액 683억 달러 중 대일 수출액 73억 달러 차지 > 10.7% 차유
  - ※ 대일 수출액 1998년 대일 수출액 대비 2002년 대비 1.5% 증가 (1998년 대비 2002년)

구분	총수출액(億 달러)	대일 수출액(億 달러)	중소기업 수출액(億 달러)
1998	53.9	122.4	44
1999	66.3	158.6	41.8
2000	82.3	204.7	40.2
2001	75.3	165.1	45.7
2002	73.1	151.4	48.3
- ◆ 中小企業의 對日主要輸出品目
  - ※ 2002년 중소기업 대일 수출품종 기계·전기·전자제품이 38.7%를 차지함
  - ※ 석유·신발류·등은 줄어드는 반면 기계·전기·전자제품·밸런스의류는 증가하고 있음

제품 분류	수출액(억 달러)
기계·전기·전자제품	28.7
석유·화학제품	11.1
신발류	11.7
제과·제빵제품	10.0
기타제품	7.8
기타제품	2.8
제과·제빵제품	2.6
기타제품	1.9
기타제품	1.4
밸런스의류	1.2

※ 자료 : KOHIS (한국기밀화학공업단지연합회)

3

**2. 兩國 中小企業의 相對國 投資**

(1) 韓國 中小企業의 對日投資

- ※ 대일 투자건수 전체의 62%, 금액기준 약 1/5 수준
- ※ 대일 투자 규모는 해외 평균 투자금액의 1/2
- ※ 업종별 투자는 서비스업 45%로 가장 많고, 제조업은 23%
- ※ 대일 제조업 투자는 대기업 74.1%, 중소기업은 21.6%에 불과함

(2) 日本 中小企業의 對韓 投資

- ※ 2001년 전체 투자업체 수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6.6%에 달함
- ※ 업종별 투자 순위는 기계 22%, 판매/유통 17%, 서비스 및 회화 각각 13%, 전기·전자 12%

<그림3> 中小企業 대일 투자 현황 (단위: 조선화)

<그림4> 인천광역시내 험한 중소기업 투자 현황

※ 자료 : 경제부(企劃部), 『中小企業 투자현황』(2002)

4

第十一章 中小企业金融服务

## 1 經營 成果力 比較

한국 중소기업은 경영성과 면에서 일본 중소기업 보다 낮으며, 특히 세시성을 일본의 60.6% 정도에 불과함

<표 2> 한·일 중소제조업의 경영성과 비교(2000년)

구 분	한국	일본	
설상성	매출액증가율(%)	12.3	6.4
수익성	매출액경상이익률(%)	3.3	4.6
연산성	기기자본비율(%)	35.8	41.9
활동성	총자본회전율(%)	1.2	1.0
생산성	증업원인당부가기지생산성(US\$)	49,633	81,899

④ 韓國：韓國政府「加強企業競爭力」，審議推動「提高競爭力的政策大綱」，並於 2012 年 1 月完成。

5

*Photo by G. L. Johnson*

## 2. 韓國中小企業의 技術競爭力 評價

◎ 對日技術競爭力格差

#### 5. 5. 3. 한국 농수산물 기업의 혁신 기술 전략과 체계화

기초분야 대상국	전체평균	기계소재	섬유화학	정기진자	정보통신	기타
중국 (비중) (29.7%)	-1.7 (-2.0%)	-2.1 (-2.0%)	-1.7 (-2.0%)	-1.3 (-2.0%)	-1.1 (-2.0%)	-1.5 (-2.0%)

卷之三十一

大班科学活动

• 8.6. 例題 A 例題 B 例題 C 例題 D

구 분	영국 (2002년)	일본 (2001년)	상대격차 (일본=100)
연구개발 종사자 비율	13.3%	51%	2.6배
연구 개발 종사자 1인당 인구생산성 증가률(2001년)	\$3,000\$	\$2,192\$	0.6배

◆ 足りる當初の割合不賃用額、「총소득과 기초생활수급기준」(2003.6.30)을 기준으로, 2003년 6월말 종합증명서에 기록된 2000년 12월말 기준 소득과 2003년 6월말 기준 소득을 합한 금액이다.

6

### 3. 경쟁력 분석(小企業 경쟁력 비교)

**3. 마케팅 競争力**

<표5> 한국 중소제조기업의 마케팅경쟁력 평가

구 분	주요 경쟁상대국 100기준 대비(%)
총당 입체수	257개
브랜드	64.1
A/S	82.6
디자인	80.3
종합(평균)	75.7

\* 표5는 2003년 기준으로, 2002년 기준으로는 100점 만점에 75.7점으로 평가되었다.

7

### 3. 경쟁력 분석(小企業 경쟁력 비교)

**3. 生産要要素別 競争力**

**4. 生産要要素部門別 競争力**

◆ 人件費率 별 原價競爭力

<표6> 韓·日 중소기업의 1인당 월평균임금비교(2001년)

구 분	한국	일본	일본대비 격차지수	
1인당	각국통화기준	1,710,000원	347,000엔	
월평균임금	미ドル리기준	1,512,5\$	2,640,8 \$	57.3%
1인당주당 임금임금	주당근로시간	48.3시간	37.6시간	
	미ドル리기준	31.3 \$	70.2 \$	44.6%

\* 표6은 2001년 기준으로, 2002년 기준으로는 1인당 월평균임금비교(2002년)로 1인당 1,130,6원(131.42%)로 57.3%로 평가되었다.

◆ 地代(公示地價比較)로 본 立地競爭力

<표7> 韓·日 공시지가비교

용도구분	한국 (2003년)	일본 (2002년)	가격비율 (일본/한국)
상업용지(원/m <sup>2</sup> )	36,000,000	192,000,000	약 5.3배
주거용지(원/m <sup>2</sup> )	3,600,000	22,000,000	약 6.1배

\* 표7은 2002년 기준으로, 2003년 기준으로는 2003년 10월 1일 기준으로 192,000,000원으로 5.3배로 평가되었다.

8

## 한·일 FTA와 小企業 影響 및 效果

**1. 主要産業別 影響**

- ❖ 韓·日 FTA에 따라 단기적으로 제조업 관련 대기업과 협력업체 등의 사업 축소, 폐수, 도산 등의 가능성
  - ❖ 자동차, 전기전자 등 어센블리 또는 세트메이커의 타격으로 하청단가 또는 발주 감소 등이 예상됨
    - ✓ 수출용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기업의 경우 FTA에 따른 매일 수출증대로는 적음
    - ✓ 내수용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기업의 경우 원재료의 대입 수입증대에 따른 터전 증가
  - ❖ 내수를 생산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수출기업간 FTA 영향의 영향이 엇갈림
    - ✓ 내수기업의 경우 관세율이 높은 품목의 경우 타격이 크며, 수출기업의 경우 일본의 관세율이 높은 품목의 수출증대 효과를 기대

9

## 한·일 FTA와 小企業 影響 및 效果

**2. 個別中小企業에의 影響**

- ❖ 한·일 FTA 체결에 대한 충소기업 수요 내용
  - 한·일 FTA 체결시 일본 기업과의 협력분야
    - (3 가지 아래 목수: 응답)

구 분	반도(%)	비중(%)
(1) 기술이전	122	32.4
(2) 공동기술개발	128	34.0
(3) 공동생산	48	12.8
(4) 위탁생산	98	26.1
(5) 기단간판매 등)제휴	165	43.9
(6) 수출	170	45.2
(7) 투자협력	73	19.4
(8) 기타장비구매	58	15.4
(9) 기타	26	6.9
<b>계</b>	<b>888</b>	<b>236.1</b>
전체응답업체수		376
- ❖ 일본의 비관세장벽 유형 및 통관절차상 가장 큰 애로 유형
  - 일본의 비관세장벽 종류별 큰 경영난 유형 (3가지내 평균 등수)
 

구 분	반도(%)	비중(%)
(1) 관세율상 일 고관세	109	29.5
(2) 수입제한	57	15.4
(3) 수입관리서비스	46	12.5
(4) 유통절차와 제도상 문제점	140	37.9
(5) 기술규정	104	28.2
(6) 환경규제	84	22.8
(7) 경영준법	19	5.1
(8) 통관절차(복잡한 관세 및 우역통장)	147	39.8
(9) 경부경색	71	19.2
(10) 시장문화	49	13.3
(11) 기타	35	9.5
<b>계</b>	<b>861</b>	<b>233.2</b>
전체응답업체수		369

■ 1-1. 한·일 FTA 체결, 일본 수출 상황 (2003년 6월 198회 조사 대상)

10

### 3. 諸稅撤廢에 따른 中小企業의 對日輸出 影響

- 수출규모가 큰 품목은 무관세/낮은 관세 영역에 집중, 관세가 높은 품목은 수출액이 작은 품목임

※ 그림은 출수 기관에 통지한 수출액과 일본에 통보한 수출액을 대조해보면 일본산 품목의 수출액이 낮은 편임

한국 대입 수출액 (X)	일본 대입 수출액 (Y)
100	28
200	25
300	20
400	18
500	15
600	12
700	10
800	8
900	6
1000	5
1100	4
1200	3
1300	2
1400	1
1500	0.5

- 일본산품의 높은 경쟁력, 한국의 생산기지의 해외이전, 중국과의 경쟁에 의한 생산 및 수출 감소 때문에 FTA에 따른 대입 수출증대는 크지 않을 수 있음
- 한·일 FTA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는 수단으로 가능 할 수 있도록 공동 기술개발, 기술도입 등의 측면이 강조되어야 함

※ 자료 : KOITA, 朝日新聞  
※ ① FTA 개정 전 대입 수출액 2000년 대비 2025년 대입 수출액 증가 예상치

11

### 5. 韓日 FTA와 中小企業 活性化 策略

- 1. 韓日 政府間 協力方向**
  - 한일 중소기업의 협력실증성제고
  - 한일 중소기업 협력위원회(가칭)운영
  - 구체적인 협력프로그램 발굴
- 2. 兩國 中小企業의 對應戰略**
  - 한일 중소기업 상호 사업보완 유망분야진출
  - 지속적인 협력성공시례의 벤치마킹
  - 전략적 제휴 저해요인 제거
- 3. 中小企業의 市場接近 障碍要因 除去**
  - 한국중소기업의 일본시장 접근 장애요인 제거
  - 한일 구조·경쟁점 학습의 개시

12



### 3. 제 2 분과회 질의응답

- 일본의 협력 파트너 기업을 만드는 방법(일본 기업을 만나는 방법 및 교류방법)에 대해
  - 한일·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이나 기후현의 중소기업진흥공사(산업기술센터) 등과 같은 기관을 통해 중개역을 해준다던가, 동 업계의 전시회에 참가하여 접촉함으로써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
  - 한일 양국재단의 연수사업 참여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음. 연수생 귀국후 한일관계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보다 확대되어 나가기를 희망함
  - 한국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이전 요청이 많은데 한국의 기업관은 아주 노동생산성이 높으며 지적레벨이 높다는 인상을 받고 있으며, IT사업분야에 있어서는 세계최고의 수준임. 이러한 가운데 중소기업의 상호보완사업에 있어서 기술이전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고 있음. 기업을 크게 키우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며 많은 노력이 필요함. 단지 기술이전을 해서 성공시킨다는 안이한 생각으로는 기업의 성공은 바랄 수 없음. 좀더 일본의 기업가운데 좋은 기술이 있으면 그 기술을 가져와서 한국 독자의 개성적인 새로운 기술을 발굴한다는 자세가 필요함. 그리고 중소기업의 기업환경에도 눈을 돌려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 한국투자사 노사문제가 자주 거론되는데 한국과의 교류경험에 비추어 바람직하게 갈 수 있는지? 한국이 R&D기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완수 할 수 있는지에 대해
  - 한국에도 목포 대불공단, 광주 평동공단 등 환경이 양호한 곳이 많으며 고부가가치제품이라면 인프라와 양질의 노동력을 생각하면 한국에의 투자도 찬스는 있다고 생각함. 그리고 노사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노동자와 경영자의 신뢰관계의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우리회사에서도 노사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일본에서 연수를 받은 사람들은 파업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들었음.
  - 본회의는 서로가 진심을 얘기하고 토론함으로써 향후 어떻게 하면 좋아지게 될 것인지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함. 한국인의 나쁜 습관중의 하나가 의뢰심임. 협동으로 한다는 것은 차이가 있으면 협동이 되지 않음. 기술의 차이, 경제적인 차이가 있으면 협동이 될 수가 없음. 일본의 중소기업과 한국의 중소기업의 차이를 보면 그 차이는 노력의 차이, 노고의 차이임. 돈을 벌면 일본인은 준비를 함. 유비무환. 이것이 한국 사회에는 없음. 한국은 지금부터라도 살기 위해서는 진정한 의미의 자기책임, 독립(그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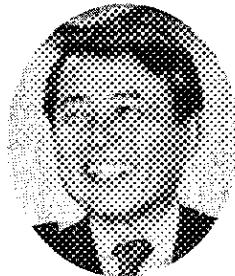
상의 것을 만들려는 노력과 정신이 필요)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함.  
진정한 우호, 진정한 친구라면 진정한 것을 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함.

- FTA라는 것은 자기희생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경제적인 논리만을 가지고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함. 신의성실의 원칙 이것이 인간의 휴머니즘이며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음. 이해관계에 사로잡혀있으면 장해가 됨.
  - 대기업은 시스템으로 움직이나 중소기업의 협력은 인간적인 관계가 중요
  - 한일관계는 비즈니스만이 아니라 서로의 인간관계 구축에 중점을 두어 보다 가까운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필요
- 금형 분야에 있어서의 한일FTA에 대한 견해에 대해
  - 금형메이커는 일본이 약 1만개사, 한국이 약 2500개사, 중국은 그 수를 읊을 수는 없으나 금형마을 같은 곳에서 약 3000채 정도 금형을 만드는 부락이 있으며, 기술적 레벨은 아직도 레벨의 상황임. 다만 금형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제휴를 하여 기술자를 파견한 곳은 기술력을 갖고 생산하고 있으나 그 수는 적은 편임. 지금부터 중국의 확대에 의해 한일이 협력한다면 반드시 좋은 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 XI. 閉　會　式

### 1. 分科會 코디네이터 報告

#### (1) 第 1 分科會 報告



麻生 泰 (ASO Yutaka)

日本側 코디네이터

감사합니다. 제1분과회는 양국의 산업공동화 문제라고 하는 상당히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서 두 분의 발표가 있었고 이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습니다.

공동화라고 하면 어둡고 뭔가 쓸쓸한 느낌이 듭니다만, 우리가 기업활동을 하는 이상 역시 새로운 생존을 위해서 소비자들을 위해서 새로운 생산지를 모색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일간의 비즈니스 베이스의 교류 데이터를 정리하고 상공회의소는 로컬 투로컬의 교류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FTA를 통해서 1억7천만의 유저가 생기는데 이와 관련된 마켓을, 구조를 어떤 식으로 구축할 것인가 라고 하는 상당히 폭넓은 주제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장내로부터 여러 의견도 개진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새로운 시각, 새로운 견해를 우리가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2) 第 2 分科會 報告



安武 史郎 (YASUTAKE Shiro)

日本側 코디네이터

제2분과회는 제1분과회와 비교해서 인원수가 적습니다만, 그만큼 활발하고 시간을 아껴야했던 충실된 토의가 되었습니다. 제2분과회는 이윤보 한국중소기업학회 회장님과 함께 코디네이터를 맡았습니다.

테마는 한일 양국의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 FTA 체결을 대비하여 라는 관점에서 토의를 했습니다. 오가끼정공의 우에다 사장님으로부터 과거 25년간에 걸친 한국기업과의 교류체험을 바탕으로 한 아주 설득력있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김학권 재영솔루텍 사장님으로부터 양국의 중소기업의 분석, FTA 체결로 인한 한국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 필요한 방안 등에 대한 설명과 제안이 있었습니다.

자유토의에서는 활발한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요약하면 호양정신과 자기 희생의 각오가 없으면 FTA는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利害心을 버려야 한다는 한국측으로부터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중소기업간의 연계에 있어서는 신뢰관계의 수립이 먼저 필요하다, 정부에 대해서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된다, 신뢰관계를 서로 구축하자, 이러한 한일경제인 회의를 통해서 그러한 체제를 만들어 나가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저도 이 회의에 많이 참석했습니다만, 과거에 없던 많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시간이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2. 團長人事



瀬戸 雄三 (SETO Yuzo)

日本側 代表團 團長

폐회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하 단장님을 위시한 한국 대표단 여러분, 이를 간에 걸친 협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측 대표단 여러분,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해는 예년과 비해 회의시간이 아주 짧게 설정되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어제 전체회의에서의 보고, 발표는 아주 명쾌하고 적절한 것이었고 참석하신 여러분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오늘 두 개 분과회에서도 아까 코디네이터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시의적절하고 구체적이고 솔직한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제 거행된 양국 대표의 기조연설에서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서로 배운다는 자세로 함께 사는 공생의 FTA를 향해서 여러 가지 우려 요소를 제거하는 구체적인 지침도 제시되었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양국 경제인이 솔직하게 자국의 문제

점을 본심으로 말하고 함께 해결책을 강구하는 참된 신뢰감이 조성되어 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내년에는 한일 국교정상화 40주년이라는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일 양국은 서로 비약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경제인회의 개최를 위하여 노력하신 일한·한일 양국의 경제협회 사무국 여러분, 그리고 회장 운영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나고야도큐호텔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해주신 통역 여러분께 감사들 드리면서 폐회인사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내년 다시 한국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金 相 廣  
韓國側 代表團 團長

존경하는 濱戶 雄三(세토 유조) 단장님을 비롯한 한일 양국 대표단 여러분! 그리고 공사다망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빛내주시기 위해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걸쳐 계속된 이번 第36回 韓日經濟人會議는 방금 전 공동 성명의 승인을 받고 모든 일정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현재 양국 정부간에 비자문제 개선을 위한 협상이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한일 양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자유롭고, 빠르게 만나 비즈니스의 기회를 창출해 나갈 수 있게 될 날도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2005년 중부국제공항 개항을 계기로 나고야지역과 한국과의 경제교류가 더욱 증진되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이곳 아이치현 나고야지역에서 개최되는 2005년 일본 아이치국제박람회가 성공리에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이치 엑스포』가 추구하는 地球的 관점에서 조화로운 공존을 해나가기 위해 우리 모두 힘을 합해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내년에는 한국에서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며 인사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第36回 韓日・日韓經濟人會議  
報 告 書**

2004年 6月 發行

編輯兼發行人 韓 元 碩  
發 行 處 社團法人 韓日經濟協會  
KOREA-JAPAN ECONOMIC ASSOCIATION

135-729 서울特別市 江南區 三成洞 159-1

(韓國貿易會館 1504號)

TEL : 02-551-1534, 1535 FAX : 02-551-1530, 1540